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시 10월 3일 한국의 날 제정

10월 20일 보스톤 시청에서 국기제양 기념식

내년 올스톤 하버드애비뉴 한국의날 축제
보스톤 커먼에서 태권도 축제 개최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이 매사추세츠 보스톤시 한국의 날(Korea Day)로 제정된다.

보스톤 시정부는 보스톤 한인회(회장 김경원)의 한국의 날 제정 신청을 받아들여 매년 10월 3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기로 했다. 보스톤시는 오는 10월 20일 시청 광장에서 한국국기제양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10월 3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할 계획이다. 한국 국기는 23일 까지 제양되어 있을 예정이다.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1:30에 시작되는 제양식은 NECN의 앵커인 크리스티 김의 사회로 진행되며 태권도 공연도 곁들여질 예정이다. 제양식 후 시청사 Piemonte room에서는 오찬행사가 진행된다. 이 오찬 행사에는 윤미자 종이접기 강사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국의 날 신청은 김경원 한인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 회장은 “한인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의 때 ‘한국의 날은 왜 없느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몰랐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자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경원 회장은 지난 9월 14일 박진영 편집장과 이번 일을 추진한 전 한인회 홍보부장 김현주 씨를 만나 의논해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작업은 김현주 씨가 맡았다. 경험과 정

보가 없어 내년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회장과 친밀한 관계인 티토 잭슨 보스톤 시의원과 연락하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풀렸다.

김현주 씨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날을 지정해 매년 국기제양기념식을 해왔으며 축제도 개최했다.”고 말하고 “제가 어떤 나라들이 각 국가의 날을 신청했냐고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은 ‘한국만 빼고 모두’였

▶▶2면으로 계속



보스톤시는 매년 10월 3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 국기 제양 기념식을 갖는다. 한인회는 보스톤 한국의 날 축제를 이 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다



MIT 1년 석사프로그램 신설 무료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

무료로 제공되는 에드엑스 플랫폼을 통해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MIT가 무료 온라인 강좌로 시작, 실제 수업을 듣고 석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과격적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MIT 측은 온라인 강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높은 교육 비용을 고려해 이 같은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MIT 라파엘 라이프 총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높이고 전 세계에서 배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IT는 이를 위해 서플라이 체인 관리에 학위를 수여하는 ‘마이크로마스터’ 학위를 신설한다. 1년 과정인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을 한 후 시험관 입회 시험(proctored exam)을 통과한 학생에게 캠퍼스에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학위의 첫번째 코스는 2016년 2월부터 MIT와 하버드가 공공으로 설립한 에드엑스 플랫폼(edX platform)을 통해 시작된다. 이 온라인 강좌는 무료로 수십개의 강좌를 제공한다.

▶▶1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어·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From \$978
ONLY 1 STOP
국내 경유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보금여유 선택이 유망여행사가 자랑입니다.
*항공권을 예매하신날부터 출발까지 비도항권요를드립니다.
3040원 11월 20일까지, 3010원 1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항공권
항공권과 함께 제공하는 요금입니다.
*보통 항공권은 3월 15일까지이며, 각 항공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전화번호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의전화 : 978-9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lace-travel.com *여행사명 : lacetravel INCORPORATED
54사건 법원명 : 1-877-424-4223 (24시간, 24시간 상담 센터)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받
기중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Anne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firm.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총영사관 개천절 기념 리셉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주 보스톤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이 주최한 개천절 기념 리셉션이 지난 6일 금요일 보스톤 소재 알공퀸 클럽(Algonquin Club)에서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는 총영사와 부총영사 내외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주 정부 인사, 교수, 학계인사, 참전용사 대표, 한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랫동안 한인 행사에 참여해온 노명호 전 세탁협회 회장은 “상당히 과거에 한인사회를 대표했던 인물들이 참석하지 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민 1세대가 점차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수포미 히메노 일본 총영사는 “같은 이웃 나라로 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며 엄성준 총영사와 아주 친한 관계라며, 많은 한국 사람들을 아주 친근하게 대해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켰다.

시민협회 김성군 이사장은 “과거 행사들에 비해 참가자수가 늘었다” 며 “영사관이 문턱 낮추기에 성공했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도연 가야금 연주자와 기타리스트 요나스 쿠블리카스의 협연(아리랑, 새소리)으로 시작했다. 특별히 ‘아리랑’ 과 ‘새소리’ 는 참가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엄성준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



리셉션에 참석한 초청객을 환영하는 엄성준 총영사 내외와 박윤주 부총영사 내외



김도연 가야금 주자의 연주를 듣는 초청객들

해 개천절은 한민족이 최초로 건국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탄생된 것을 경축하는 민족 고유의 날이라고 알렸다. 이어 엄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며 한미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엄 총영사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원 한인회장이 축배의 인사로 모두 다 함께 ‘건배’ 를 외치며 축배를 하였다.

jham@bostonkorea.com

내년 보스톤 한국의날 축제 계획

▶▶1면에 이어서다” 고 밝혔다.

김경원 회장은 “올해는 간단한 국기 게양식 행사로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총영사관의 개천절 기념행사와 합동으로 한국의 날을 개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한인회는 올해 한국의 날 제정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한국의 날 길거리 행사와 태권도 시범행사를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와 보스톤 커먼에서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매년 6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태권도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김경원 회장은 이 행사를 후반기인 10월에 보스톤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원 회장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 교장들과 협의해야 하고, 주정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며,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적 절차만 끝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은 어렵지 않다.

보스톤 시의원인 티토 잭슨은 뉴욕 타임스퀘어 태권도 행사에 연사로 참여한 후 이 행사를 보스톤에서도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후 김경원 회장과 상당한 교감이 있



었다. 김 회장은 티토 잭슨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10월 3일 보스톤 커먼과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에서도 길을 막고 한국 음식을 선보이며 한인들의 길거리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

김경원회장은 “못할 게 뭐가 있나. 태권도, 축제, 음식으로 한인들의 날을 자축해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해 보자” 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지난 2005년 상하원에서 결의안을 통해 1월 13일을 미주 한인들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주단위로는 워싱턴 주, 조지아주, 캘리포니아주 등이 한인들의날을 제정했으며 아리조나 주는 올해 8월 15일을 한국 광복의 날로 지정했다.

시단위로는 LA, 샌프란시스코만 한인들의 날을 제정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대리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펄 & 셋팅 펄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펄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품월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인들 한국정치인들에게 너무 가혹

한국인들 미국인들보다 더 비판적
천안함 통보전까지는 전혀 몰라



성김 캐슬린 스티븐스 스티븐 보스워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주한 미대사였던 캐슬린 스티븐스는 지난 1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한국인들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미국보다 더 비판적이다” 라고 밝혔다. 캐슬린 전 대사의 이같은 대답은 터프 플래처 대학의 이성윤 교수가 “김구 이후로는 한국 사람 마음의 영웅으로 자리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주한 미대사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는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사실상 한국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많다” 고 덧붙혔다.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김구 재단이 한국 시사 1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주최로 전직 주한 미 대사들의 좌담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캐슬린 대사는 “미군에게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고 답했다.

이날 좌담회는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김구 재단이 한국 시사 1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주최로 개최한

자리이다.

전직 주한 미대사들은 자신들의 근무 당시 한, 미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는 “한국에 온 후부터 대사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한민국은 IMF를 겪었다” 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었다” 며 “한국에서 대사로 있을 당시 한국은 글로벌한 나라로 자리를 잡아갔다” 고 밝혔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대사로 있었던 성 김 대사는

“한, 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협동적으로 견고하게 발전되어간다” 고 말했다. 캐서린 문 교수 또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며 “앞으로 한국이 이민법을 새로 개선해야 한다” 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엄성준 총영사관을 비롯해 하버드 대학교 김선주 교수 외 6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jham@bostonkorea.com



아시아 가정 폭력 대항 단체 ATASK 실크로드 갈라 디너 24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아시아 태스크 포스(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하 ATASK)가 주최하는 ‘실크로드 갈라 디너’ 가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보스톤 John Joseph Moakley 법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데 쓰여진다. 실크로드 자선회는 후원금을 모으고 ATASK의 업적을 나누기 위해 1994년부터 매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 22번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에 음식으로는 본미(Bon Me), 나이트 마켓, 저니맨, 피페리(Piperi), 리알토(Rialto), 소우스(Saus)가 참여한다.

식사 및 리셉션에 이어 요리쇼,

경매, 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공동 의장으로는 Bob's Discount Furniture의 모린과 테드, 터프 메디컬 센터의 마이클 와그너 박사와 트레이시 와그너 박사이다.

ATASK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아시아 여성 중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돕는 자선단체이다. 이들은 1년 365일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신고를 받고, 한국어 상담원을 비롯해 12개국 아시아 상담원을 두고 있다. ATASK는 폭력 피해 아시아 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jham@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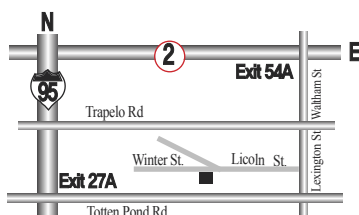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치대 진학 준비 프리덴탈 워크샵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덴티스트포휴머니티(Dentists for Humanity)가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우번 소재 웨스트 커밍스 파크(800 W Cummings Park #3250, Woburn, MA 01801)에서 치대 준비생을 위한 프리덴탈(Pre-Dental) 워크샵을 개최한다.

보스톤대학(BU), 터프츠대학(Tufts Univ.), 하버드대학(Harvard Univ.)의 치대생들과 보스톤 지역의 치과 전문의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 워크샵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치대에 관심 있는 치대 준비생이나 포스트백(post-baccalaureate) 과정 중인 사람에게 특히 유용한 워크샵이 될 것이다.

하버드 치대 권수연 학생은 “치대 원서 준비, 입학 시험(DAT), 인터뷰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고 현지 치과 전문의들의 오피스를 방문할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며 “치대에 관심 있는 보스톤 인근 한인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고 전했다.

워크샵 참가 신청은 다음 링



덴티스트포휴머니티에서 오는 24일 웨스트 커밍스 파크에서 치대 준비생을 위한 프리덴탈 워크샵을 개최한다

크 (<http://www.dentists-forhumanity.org/#!predental/c68d>)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샵의 참가비는 \$100이며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덴티스트포휴머니티가 참여하는 아이티 클리닉 후원 등 다양한 국내외 봉사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덴티스트포휴머니티는 칠드런스 호스피탈(Children's Hospital) 소속 김수우 교수(하버드 치의대)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보스톤 지역

치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덴티스트포휴머니티 홈페이지 (www.dentistsforhumanity.org)를 통해 알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오전9시~오후 5시30분

장소: 800 West Cummings Park, Woburn, MA 01801

jham@bostonkorea.com

평범한 북한 주민 일상 담은 다큐멘터리 11월 3일 보스톤 상영

김대실 김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사람은 하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 조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장막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5시 보스톤 대학 조지셔먼유니온(GSU) 컨퍼런스 오디토리움에서 상영된다.

뉴욕 거주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인 대실 김 김순 감독의 8번째 작품인 'People Are the Sky' 는 김 감독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필름이다.

북한에서 출생한 김감독은 1945년 서울로 건너와 서울에서 자랐으며 1962년 보스톤 대학으로 유학했다. 그는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이후 주정부와 연방 공무원직을 거쳐 지금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전직한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감독은 'People are Sky' 를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특히 김감독은 고향 찾기와 북한의 일상적인 주민들이란 두가지 주제를 연결했으며 이중에 북한과 미국, 한국 간의 관계 개선측면을 알아보는 필름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에 시달리던 김 감독이 고향을 찾아 북한을 방문해 결국 고향은 북한이란 나라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사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영화 상영 이후에는 김대실 감독을 비롯, 올 11월초 북한에서 돌아올 예정인 정희수 주교가 참석해 함께 북한에 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상영과 김 감독, 정 주교와의 대화 후 7시 30분 부터는 리셉션이 진행된다.

People Are the Sky

시간 : 11월 3일 오후 5시

장소 : GSU (George Sherman Union) Conference Auditorium, 775 Commonwealth Ave., 2nd floor.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가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고 백린 전 회장의 장례식에배가 지난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진행됐다

고 백린 전 회장 포레스트 힐 묘지 안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고 백린 전 회장의 장례예배가 지난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32 Harvard St.)에서 진행됐다.

이날 환송예배는 이정공씨의 트럼펫 후주로 예배가 진행됐으며 이영길 목사가 예배의 집례와 설교를 담당하였다.

설교에 이어 흥경자 장로, 고 백린 전 회장의 손녀 (Jenny Paik), 와 차남 백형기 씨의 조사가 진행됐다.

백형기 씨는 고 백린 전 회장과 미국에 처음 왔었을 당시의 추억들을 나누면서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고 전했다.

장남 백형기씨는 “바쁜 와중에도 발걸음 해주신 한분 한분께 보답하기 위해 장지에 다녀온 후 식사를 대접하겠다” 는 말을 인사광고와 함께 전했다.

고 백린 전 회장의 하관 예배는 12시 장지인 자메이카 플레인 소재 포레스트 힐 묘지(95 Forest Hills Ave)에서 열렸다.

jham@bostonkorea.com



Friends of Korea

Dedicated to fostering cultural awareness and friendship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평화봉사단 '한국의 친구들' 연례총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평화봉사단원의 봉사단체 ‘한국의 친구들 (FOK : Friends of Korea)’ 이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 웨슬리 도서관에서 오찬 리셉션 및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가 환영사와 FOK 회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며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수여, 한국 개발원조기관 KOICA 활동 소개, 한국 관련 강연, 한국 문화 공연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 대한 참석여부와 문의사항은 는 (<http://events.r20.constantcontact.com/register/event?oeidk=a07ebkp6nubefe05903&llr=bfX9iwdab>) 에서 가능하다.

행사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 5시

장소 : 웨슬리 도서관 (Wellesley Free Library) 530 Washington Street Wellesley, MA 02482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류업체 | 연합뉴스사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아시아인 아메리칸 위원회 유니티 디너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시아인 아메리칸 위원회의 (Asian American Commission - AAC) 연중행사인 유니티 디너가 오는 15일 목요일 6시에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에서 개최된다. 20명의 위원들 중에 한국 위원들은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을 포함한 시민협회 이사인 엘리자 최, 리디아 신이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위원회는 각각 주정부 정치인들로부터 한국 외 다양

한 민족을 배경으로 아시아 민족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임명 되었다

시민협회에서는 매해 "One Table" 을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영사 포함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해 회장은 “많은 참석과 후원을 부탁한다” 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스톤 월시 시장의 수석 보좌관 다니엘 고 씨가 연사할 예정이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위원회의 입장료는 1인당 \$120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경해 회장(598-962-2689)을 통해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보스톤한미문화재단 갈라 콘서트

후원과 감사의 밤 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KACF: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 이 사장 김문소)이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 ECC건물에서 가을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마을 거리에서(At the Village Crossroads)”라는 주제로 “서양과 동양의 음악과 휴식이 만나는 밤(An Evening of Eastern and Western Music and Desserts)”의 제목으로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마이클 토마스 푸마이(Michael-Thomas Foumai)의 보스톤 프리미어 빌리지 뮤직(Boston Premier of Village Music)의 현악 공연으로 가야금, 판소리, 클라리넷, 첼로, 바이올린 등이 연주될 예정이며 화음 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와 브로드웨이 투 보스톤(b2b Theatre)의 피쳐링이 이어진다.

이날 행사의 1부 공연으로는가야금의 김도연 (Do Yeon Kim), 클라리넷의 조단비 (Danbi Cho), 바이올린의 고은애 (Eunae Koh), 첼로의 권현지 (Hyun-ji Kwon) 등의 정상급 연주자들과 화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박진욱, 대표: 장수인)가 선사하는 감미로운 음악이 준비된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의 현대 음악이 조화된 작품, 특히 미국

작곡가 마이클 토마스 푸마이의 작품을 통해 한국 작곡가 유건주의 가야금 협주곡등이 연주될 예정이고, 브로드웨이 투 보스톤의 이혜승 (Director: Heather Lee), 정종은 (Jina Jung), 그리고 Shannon Ignatius등이 재즈 피아니스트인 심규민 (Kyumin Shim)의 반주로 함께 공연한다.

1부 공연 후 2부 순서는 장승호 (Seungho Jang)씨와 그의 밴드가 제공하는 재즈음악 속에서 최안나 (Anna Choi)씨와 김동숙 (Donna Hyun) 씨가 함께 준비한 서양과 동양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펼친다.

김문소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보스톤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동포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본 행사에 모두 초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주회의 입장료는 1인 \$100, 2인 \$150이며 행사당일 구입이 가능하다.

보스톤한미문화재단 갈라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617-561-0837와 info@korean-cultureboston.org 통해 가능하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0월 17일(토), 저녁 7시

장소: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안 세라믹' 한인 도공 작품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는 한인 도공들의 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콩코드에 소재한 라코스테 갤러리 (Lacoste Gallery, 25 Main Street, Concord, MA 01742)에서 전시한다.

세라믹을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어온 도공들은 최성재 작가, 이인진 작가, 이정도 작가, 이강호 작가, 이수중 작가, 여선구 작가이며 이들은 ‘코리안 세라믹’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라코스테 박물관은 1990년 이후 세라믹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 왔다.

‘코리안 세라믹’ 전시회의 큐레이터는 세라믹 아티스트 여선구 작가이며 경기도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수상자이다. 이번 전시회의 리셉션 및 초대전은 오는 토요일 17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코리안 세라믹’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김병국 회장 (byungkim@yahoo.com, 781-367-5993)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사일정

날짜: 2015년 10월 17일(리셉션 오후 2시) ~ 11월 7일

장소: 라코스테 갤러리(Lacoste Gallery, 25 Main Street, Concord, MA 01742)

jham@bostonkorea.com

김남희 작가 리셉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 제 3회 협회전 김남희 작가의 리셉션이 지난 3일 오후 2시 렉싱턴 소재 예술 & 수공 협회 전시장(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총영사와 하버드 교수진들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희 작가는 자기 소개와 더불어 MIT 학생으로부터 도예를 소개받아 도예를 시작했던 이야기,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작가는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다”라며 “앞으로 더 많이 배워 더 열심히 도자기에 대한 열정을 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나는 아직 젊다, 이 방에서 내가 제일로 나이가 많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젊다”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특별히 맘에 드는 작품이 있느냐는 보스톤 코리아의 질문에 김 작가는 “나는 물고기를 사랑한다”며 물고기 모양이 새겨진 분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였다.

김 작가의 작품들은 보통 물고기, 닭, 식물들의 모습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새겨진 것을 볼



보스톤한미예술협회 제 3회 협회전 김남희 작가의 리셉션이 지난 3일 렉싱턴 소재 예술 & 수공 협회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수 있었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김남희 작가의 전시회는 오는 17일 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남희 작가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김병국 회장 (byungkim@yahoo.com, 781-367-5993)을 통해 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북부 보스톤 한국학교 제6회 가을 운동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북부 보스톤 한국학교(교장 장인숙)가 지난 9월 27일 앤도버 소재 북부 보스톤한국학교 운동장에서 제 6회 가을 운동회를 마쳤다.

한순용 NAKS-NE 회장의 축사와 정대훈 이사장의 격려사로 가을 운동회가 시작됐다.

운동회는 청군과 백군이 나누어 과자 따먹기, 호박 나르기, 풍선 터트리기, 페이스페인팅, 칩샷, 릴레이, 박터트리기 등 다양한 게임종목이 진행됐다.

특별히 박 터트리기에 사용된 오재미는 북부보스톤교회 상록회에서 직접 손수 만들었다. 가을 운동회에 이어 학부모회에서 준비된 식사가 제공됐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상품을 선사하는 시간으로 가을 운동회의 마무리를 지었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학부모는 “요즈음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전통적인 운동회 광경을 미국에서 보는 것이 감회가 깊다” 고 말했다. 장인숙 교장은 “북부 보스톤 한국학교는 한국의 전통 행사를 통해서 우리 뿌리 학생들이 미래에 2세 자녀들에게 한국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 재미나는 한국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 관계자들, 이은희 학부모 회장 및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jham@bostonkorea.com



북부 보스톤 한국학교가 제 6회 가을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운동회는 청군과 백군이 나누어 진행되었다

총영사관 민원실 확장해 한인들의 쉼터로 바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원실을 확장해 영사관 민원실을 한인들의 쉼터로 바꾸었다. 보스톤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이 영사관 문턱을 낮추고 한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도 빌려가고, 또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 시켰다. 주 보스톤 총영사는 지난 2일 개관식을 갖고 한인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엄성준 총영사는 “작년 부임했을 때부터 한인들을 위해 더 넓고 쾌적한 민원실로 개선하고 싶었다” 며 “앞으로 민원실에 도서들을 많이 들여놔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고 말했다. 이전 민원대기실은 기다리는 공간이 좁았지만 옆 사무실을 구입해 개장공사를 통해 공간을 대폭 늘려 한인들이 책도 빌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지난 2일 영사민원실 확장 개관식을 가졌다

려보고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으로 변모했다. 엄 총영사는 “민원실의 공간이 넓어져서 한인들이 차도 마시고 다과시간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민원실 개관 기념식에는 김경원 보스톤한인 회장,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회장, 한선우 민주평통 회장, 이경해 한인시민협회 회장 등 단체

장들이 참여하여 확장 개념을 축하해주었다.

총영사관은 그동안 영사관 보스톤 다운타운 이전 등 여러 가지 영사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시도해왔으나 결국 주차가 편리하고 차로 접근이 쉬운 현재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bostonkorea@hotmail.com

앰허스트 한국학교 다양한 추석행사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앰허스트 한국학교는 지난 9월 25일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함께 추석을 보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한순용 회장과 박지애 총무 등이 참가했다.

추석을 맞이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한복을 차려 입을 후 김경은 씨의 무용에 맞춰 강강술래를 추었다. 이어 민속놀이, 송편 만들기 등 추석을 즐겼다.

앰허스트 한국학교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우리말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앰허스트 한국학교는 지난 9월 25일 앰허스트 한국학교 소지에서 추석 행사를 가졌다

를 양성한다’ 는 목표로, 2014년도 비영리법인 코리아 인 앰허스트 (Korea in Amherst) 산하에 생성되었다. 국어, 사회 등 한국 정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초등부와 한글 및 한국어에 중점을 둔 유치부, 한국

어 기초반 및 다지기 반에 현재 37명의 학생들이 있다. 수업 외에도 세종도서관 운영, 문화행사, 교류사업 등을 통해 서부 매사추세츠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국은 재미난 지옥, 미국은 심심한 천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모국인 한국을 떠난 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조국의 땅에 발을 디뎠다. 한국을 떠날 당시 12살, 부모님 손에 이끌려 미국을 향하는 비행기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2002 한일 월드컵 이었다. 조국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하면서 가 기 싫은 미국을 부모님 손에 이끌려 비행기에 탑승했다.

13년이란 세월이 지난 25살의 나이에 방문한 한국은 마치 초등학교 친구와 다시 마주한 것처럼 어색하지도 않았고 해외 여행할 때 느끼는 새로움도 없었다. 아마도 항상 한국이 내 나라, 내 집이라고 생각했기에 고향을 찾는 향수같은 느낌이였다. 보통 해외 여행 중 길을 잃으면 막막해지고 무서움이 몰려오지만 한국은 언제 어디서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어 오히려 편안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중 ‘정말 이곳이 한국인가’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마치 미국으로 떠날 때 ‘정말 한국을 떠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반복했던 것과 같았다. 십년이 넘도록 오고 싶었던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한국의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닌 떠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서울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한국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해준 것은 봉고트럭이었다. 미국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봉고트럭은 한국 트럭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봉고트럭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트럭 뒤에서 과일 장사를 했던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모습을 연상케 해 무의식적으로 트럭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했던 것 같다.

서울은 뉴욕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도시를 보지



못한 나이에 모든 도시들이 똑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는 택시들과 길거리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상가안으로 치맥(일명 치킨과 맥주), 커피숍, 분식점, 부동산들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편의점 또한 걸음거리 5분마다 위치해 있어 속으로 ‘이렇게 많은 편의점이 필요할까, 또는 옆집과 경쟁이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지하철은 확실히 보스톤 지하철과 비교하면 더 깔끔하고 현대적이다. 지하철역에는 어렸을 적 볼 수 있었던 유리벽이 생겨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발을 잘못 디더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

치되었다고 생각했다.

지하철을 타면서 한국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은 외국인들의 모습이였다. 어렸을 적에 아주 가끔 볼 수 있었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백인, 흑인, 중국인 할 것 없이 흔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한국이 아시아 관광 중 한 곳이 된 것도 있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온 외국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2호선은 동대문, 강남, 영등포, 홍대, 신촌 등 다른 철도를 이어주는 노선이기엔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 2호선의 상징 색은 녹색이다. 그 부분에서 보스톤의 그린라인과 많은 부분이 일치해 헛웃음이 나왔

다.

서울의 부촌, 남서울이라 불리는 강남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빌딩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빌딩은 성형외과 전문점이었다. 특별히 강남구 압구정동과 신사동에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중국여성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성형외과 빌딩 주위에는 공항 스텐더디스와 비슷한 유니폼을 입은 성형외과 직원들의 모습이 발견할 수 있었다.

강남에 비해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온 강북 도봉구는 13년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마치 어제 왔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부터 초등학교 길거리는 13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한걸음 한걸음 걸으면서 초등학교 등교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곤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상가 안 문방구와 주인 아주머니 또한 바뀌지 않아 내(자신) 나 이만 들었지 자라왔던 동네는 마치 시간이 멈춰져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

서울의 칼리지 타운인 홍익대학교(일명 홍대)와 신촌거리는 젊은이들의 기와 영혼이 충만한 거리였다. 주말에는 홍대 시내거리 왼쪽, 오른쪽과 가운데 상관없이 모두 20대 청년들로 붐볐으며 대부분이 모자, 셔츠, 바지, 신발까지 맞춰 입은 커플들이었다. 신촌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해 이리 저리 치맥집들과 술집들이 눈에 띄었으며 홍대는 놀자 골목으로 젊은이들의 클럽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시내거리 가게들의 실내장식과 오밀조밀 꾸며놓은 장식들은 섬세하고 서정적이다. 이런 부분은 오직 한국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감히 생각해보았다.

최근 한국은 힙합의 유행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힙합패션으로 옷을 입고 다니며 홍대의 길거리에서는 길거리 공연(힙합 춤, 랩)을 구경할 수 있다. 이외 명동, 동대문, 영등포 타임스퀘어, 경복궁, 남산타워 등 많은 곳을 구경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룻밤은 시차적응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 새벽 세 시경 산책 겸 바람을 쐬러 걸었던 밤이 있었다. 시내에는 택시들이 꾸준히 오갔으며 포장마차에서 소주병을 기울이는 몇몇 사람들도 보였다. 감자탕 집에서 술이 만취해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운전 을 하며 떠나는 젊은 여성과 사거리 앞에서 몇 개 남지 않은 밤과 옥수수를 억지로 팔려고 하는 할머니도 목격했다.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른 새벽에 상가를 청소하는 할머니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한국사람들은 어떤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궁금해졌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한강다리를 조용히 혼자서 걸었다. 나는 이 생각이 유지하고, 질문의 답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 조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내가 만약 한국에 계속 거주했으면 저들과 함께 묻혀서 살아갔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머리를 맴돌았다.

해가 뜬 걸 숙소로 돌아와 눈을 붙이려는 즈음, 예전에 미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대학생 친구의 말이 살짝 머리를 스쳐갔다. “한국은 재미난 지옥, 미국은 심심한 천국”

jham@bostonkorea.com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6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손님 초대 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로 몸도 마음도 조금은 움츠러드는 시기다. 여름과는 달리 외식보다는 아늑한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할 일 또한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을 초대할 때, 음식 준비 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상식들을 모아봤다.

▶ 할랄 푸드 (Halal Food)

아랍어로 할랄은 '허용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즉, 할랄 푸드는 과일, 야채, 곡류를 비롯하여 어류, 어패류 및 육류까지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모든 음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할랄 육류(Halal Meat)를 가장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단순히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한다고만 알려져 있으나, 닭고기나 양고기라도 이슬람식 도축법으로 도살되지 않았다면 금기 식품이다. '할랄' 육류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슬림 도축자가 동물의 정맥을



끊어 즉사시켜야 하며 도축 후에는 거꾸로 매달아 몸 안의 피를 모두 빼내야 한다. 동물의 피와 그 피로 만든 제품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에는 무슬림 이민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할랄 육류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데, 매주 금, 토요일마다 장이 서는 헤이마켓(Haymarket)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식물성은 항생제나 첨가물 없이 재배되었다면 모두 할랄 푸드에 들어가지만 보수적인 무슬림에게는 포도 주스나 발사믹 식초처럼 발효되면 술로 변할 수 있는 항목도 또한 금기 식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코파이의 경우 마시멜로에 돼지껍질에서 추출한 젤라틴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슬림에게는 금기 식품이다. 또한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을 제외한 모든 라면 스프에는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 또한 그들에게는 금기 식품이니 알아두자.

▶ 코셔(Kosher)

할랄 푸드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식품이라면 코셔는 유대교의 식사에 관련된 율법에 의해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 등의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먹기에 합당한 음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할랄과 마찬가지로 코셔는 사전적으로 '적당한, 합당한'의 의미다. 코셔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랍비청의 인증이 필요한데, 그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셔 인증이 된 음식은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인증 수수료 또한 비싸기 때문에 보통 코셔 인증 식품들의 가격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인 코셔 인증 제품은 홀 푸드(Whole Foods) 등 일반 슈퍼에서도 흔히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코셔 육류는 하버드 스트리트428번지에 위치한 The Butcherie에서 구매 가능하다.

▶ 베지테리언(Vegeterian) vs. 비건(Vegan)

미국에서 손님 초대 전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중 하나다. 엄밀히 따지면 베지테리언의 한 종류가 비건이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알아두자. 보통 베지테리언 중에는 육류나 어류는 먹지



않지만, 계란이나 유제품, 치즈 정도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건은 계란, 버터, 유제품, 치즈, 벌꿀 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 채식을 의미한다. 즉, 반드시 비건 인지까지도 확인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 글루텐 알러지(Gluten Allergy)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은 밀(Wheat)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호밀(Rye), 보리(Barley), 귀리(Oats) 에도 들어 있으므로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리나 귀리가 섞인 잡



곡밥 등도 피해야 한다. 또한, 글루텐이 숨겨져 있는 식품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장, 간장, 된장, 카레, 짜장 등에도 보통 밀가루가 들어가므로 주의를 요한다. 보통 미국 슈퍼에서는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일반 간장 대신 '타마리 간장' (Tamari Soy Sauce)을 판매하니 참고하자.

htj@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안면마비, 어혈, 내이염 등 중추신경 질환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두통, 스무스스 증후군
- 관상 동맥질환, 심장, 호흡기 질환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안면마비, 어혈, 내이염 등 중추신경 질환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두통, 스무스스 증후군
- 관상 동맥질환, 심장, 호흡기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김동원 치과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사츠크 초 최소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시티 스포츠 결국 파산 신청

무리한 확장과 렌트비 부담 때문에 보스톤 지역에서는 계속 영업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을 기반으로 스포츠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티 스포츠(City Sports)가 챗펍 11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 5일 파산 신청을 한 시티 스포츠는 26개 매장 중 8개 매장 문을 우선적으로 닫고, 이후 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티 스포츠의 마티 하나가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했다. 그리고 더 건강한 회사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티 스포츠는 1983년에 보스톤 매사추세츠 애비뉴에서 1호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보스톤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매장을 확장해 26개까지 매장을 늘려갔다.

시티 스포츠는 아직 어느 지역에서 매장이 철수할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티 스포츠의 대변인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보스톤 지역에 있는 매장은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 스포츠 매장은 매사추세츠 주에 9개가 위치해 있고, 뉴욕, 워싱턴 DC, 매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등에 나

지 매장이 있다. 시티 스포츠는 회사의 구조 조정 절차가 1달에서 최장 3달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티 스포츠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봄부터다. 시티 스포츠는 이때부터 매장 운영 시간을 줄이고, 매장 근무 인력을 감축하고, 배달 시간을 늦추는 등의 시도를 통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로 도심 지역에 매장이 위치한 시티 스포츠는 렌트비의 부담이 컸고, 건물주들과 협상을 통해 렌트비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과중한 렌트

비가 결국 시티 스포츠를 파산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외에도 시티 스포츠는 나이키, 언더아머, 아식스 등 대형 스포츠 용품 회사들에 각각 100만 달러 가량의 채무가 있다.

시티 스포츠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 2008년에 시티 스포츠 경영에서 물러난 마이클 케네디는 “나는 동업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알반 아웃피터스의 입지 전략을 차용했다. 대도시 중에서도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매장을 여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며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은 다른 입지 전략을 추구했고 결국 막대한 골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에서 첫 가게 문을 연 시티 스포츠가 파산 신청을 했다



지금은 사라진 주류 광고가 전철이나 버스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

MBTA 술 광고 다시 할지 고려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에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철이나 버스에서 주류 광고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류 광고는 2012년 이후 MBTA에서 사라졌으나, 주류 광고를 할 경우 광고 수입이 2년 내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치가 나왔다.

지난 5일 있었던 MBTA 컨트럴 보드 회의에서 광고를 통해 MBTA의 수입을 늘리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중에서 MBTA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수주하는 타이탄에서 주류 광고를 할 경우 내년에 2,600만 달러의 수익이, 2018년에는 3,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MBTA는 2012년에 자체적으로 주류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이었던 마티 월시는 MBTA의 결정을 축하하며 매사추세츠 주 전체에서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지금은 보스톤 시장이 된 월시는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보스톤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MBTA가 주류 광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많은 버스와 전철을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류 광고를 한다고 해도 MBTA의 수익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홍삼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편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FREE

- ✓가벼워봄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혈액순환 개선
- ✓양호한 맛을 예방
- ✓혈당 조절을 돕는 개선
- ✓간염 예방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최대한 크고 이쁘고 부드러운 농인비소오일

8년간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보편드스토어

8 Old Concord Pk., Burlington, MA 01808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패딩주 방문 아이 사망 후 부모들 우려 높아

메인 어린이 패딩주 방문 후 감염으로 5일 사망
소나 양의 배설물에 있는 이콜라이균이 감염원인
동물 만진 후 손씻고 옷도 빨아야, 유모차 반입 말아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의 한 페어에 마련된 패딩주를 다녀온 어린이가 갑작스레 사망하고 다른 한 아이가 입원하면서 부모들의 패딩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탑스필드 페어 등 여러 페어가 한창인 가운데 과연 아이들을 패딩주에 데려가도 될지 망설이게 하고 있다.

9월 말 메인주에서 열린 옥스포드 카운티 페어에 참석했던 20개월의 콜튼 과이 군은 용혈 요독증후군(HUS)에 감염되어 포틀랜드 병원에서 지난 5일 사망했다. 그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불확실 하지만 과이군의 아버지 존 과이 씨는 패딩주에서 감염된 이 콜라이 균에 따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콜라이 균은 사람과 동물의 소화기관에 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 독신' 이라고 알려진 이

콜라이 좋은 심각한 병을 일으킨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의 감염과 케빈 크랜스톤 소장은 "소수의 케이스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콜라이에 노출될 경우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릴 수도 있다" 고 밝혔다. "감염되는 경우 적혈구가 파괴되어 요독이 신장의 불능을 초래하고 결국은 신장이 손상을 입게 된다" 고 그는 덧붙였다.

메인 질병예방통제 센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두 어린이들이 옥스포드 페어에서 패딩주와 동물 전시장을 방문한 후 감염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질병통제센터의 존 마틴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음식 또는 다른 감염원인도 찾고 있다" 고 밝혔다.

미신장 재단의 레슬리 스프리 대변인에 따르면 이콜라이는 소나 염소

등 동물의 배설물에 섞여 있으며 어떤 소나 염소의 배설물이 감염되어 있는지 알길이 없다" 고 말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면역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취약하다. 아이들이 동물을 만질 때 배설물이 섞여있는 털을 만질 수 있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강한 어린이들의 경우 패딩주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주 드문 경우에만 용혈성 요독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크랜스톤 박사는 "패딩주와 페어는 아주 재밌는 곳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을 씻고 청결제를 자주 발라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라고 강조했다. 동물들을 만지고 난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옷도 빨아야 한다. 패딩주에는 음식물이나, 짚꼭지, 그리고 유모차 등 감염될 수 있는 것들 것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패딩주에서 동물을 만진 후 손씻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합격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지급

▶▶1면에 이어서
누구나 무료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1번째 학기를 성공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학기가 끝난 후에는 수수료를 지불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MIT는 현재 과정의 비용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주요 회사들과 기관들과 협력해 합격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1년 학사프로그램의 비용은 \$65,446이다.

이번 학사 학위는 한국 또는 세계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새

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서플라이 체인 매지니먼트는 생산단계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생고기, 생선 등의 저장 및 이동, 재고 등을 다루게 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MIT가 온라인 학업 프로그램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MIT는 2011년 MITx라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과정을 만들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진짜 독한 플루 못잡는 플루 백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플루 백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 관계자들도 백신의 효력이 일부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플루 종류와 백신이 잘 맞지 않아 그 효력이 크게 약화됐었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3-4종류의 플루 타입을 예방하도록 만들어 진다. 최근 연구에서는 백신이 한가지 플루

타입에 아주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감염병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플루 H3N2로 알려진 타입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이 최근 평균 38%의 효력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H1N1 타입과 플루B에 대해 백신은 효력이 60-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백신이 H3N2에 약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 첫째 일반

대중의 백신에 대한 신뢰를 반감시킨다. 또한 H3N2 종의 플루가 더 심한 플루 증상을 일으킨다. H3N2 타입의 플루가 유행할 때 가장 심각한

위스콘신 주 마시필드 소재 마쉬필드 클리닉 연구재단 플루 학자 에드워드 빌링지아 박사는 "H3N2는 (백신에 있어)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H3N2이야말로 가장 많은 입원과 사망률을 일으키는 플루여서 우려가 높다" 고 지적했다.

빌링지아 박사는 지난 8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60여개의 연구에서 자료를 검토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

수석 과학자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플루 백신 일반적으로 약 70-90%의 감염을 감소시켰다. 이 추정치는 수년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몇 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이래 플루 과학자들은 백신의 효력을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다시말해 플루 바이러스 타입으로 세분화해서 백신이 얼마나 효력을 냈는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플루 백신 접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A타입의 플루 (H1N1 and

H3N2)과 한 두 종류의 B 타입의 플루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빌링지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시니어들보다 H3N2 바이러스 종류에

"H3N2 바이러스 백신에 좋은 효력을 보인 연령대는 없었다. 이 백신은 약 30-40% 정도의 감소 효율을 나타냈다. 백신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하지만 결코 일반적으로 예상하던 것에는 못미친다" 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대표이사.
10년 이상 보스톤 지역으로 유능한 국제 부동산 전문가(MBA)를 대표하고 있는 BOSTON-CAMBRIDGE 지역 10년 이상 활동하고 각 지역마다의 시장,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전문 서비스를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목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h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지하철, 사립 학교, 참나무로 둘러싸여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Allston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위기의 힐러리, 오바마와 '거리두기' 노골화

TPP · 벤가지특위 · 총기규제 · 이민정책 잇단 비판 WP "경선레이스 장악 행보"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이메일 스캔들'로 지지를 하락을 겪으며 위기에 처한 미국 민주당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노골화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 업적으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7일 공식으로 천명한 데 이어 총기규제와 이민, 동성애 문제 등 각종 대선 어젠다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확실히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당선 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첫 민주당 경선주자 토론회를 앞두고 자신을 턱밑까지 쫓아온 '아웃사이다' 버니 샌더스 돌풍을 차단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TPP에 대해 "오늘 현재 내가 그 협정에 관해 아는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가 국무장관 재직 시 TPP를 "골드스탠더드"라고 띄우며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고려하면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대선 레이스에서 뛰어난 이래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TPP 협상이 노동자 보호와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를 원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날 선언으로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노조 편에 설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민주 · 공화 양당의 대선 전초전이 된 '벤가지 특위'를 놓고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격을 날렸다.

지난 5일 NBC방송의 '투데이'에 나와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의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 특위의 발족을 막지 못한 것을 에둘러서 비판했다.

공화당이 주도해 만든 이 특위는 2012년 9월 리비아 무장집단이 리비아 벤가지 소재 미 영사관을 공격해 대사를 포함한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려고 설치된 중립적 기구지만, 유력 주자인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이가 클린턴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서 "그러나 우리는 벤가지 특위를 꾸렸다. 현재 그녀의 지지도가 어떤가? 떨어지고 있다"라며 특위의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정치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 탓에 자신의 '이메일 스캔들' 등이 쟁점이 되며 곤경에 처했다고 원망한 셈.

또 클린턴 전 장관은 "집권하면 강력한 총기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민자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할 것" "동성애 이슈가 대선의 쟁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핵심 대선 어젠다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잇따라 차별화를 내놨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국무장관이었던 자신과 함께 일했던 미국의 대통령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클린턴 전 장관은 더욱 진보적이고 강경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어젠다를 선보여 경선 레이스를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shin@yna.co.kr



미국 민주당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우)

트럼프 "이라크 전쟁은 최악의 결정... 부시가 중동혼란 초래"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6일 밤 폭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부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2007~2008년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에 "부시는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 개시 결정은 최악의 결정 가운데 하나이며, 조지 부시는 중동 지역을 완전히 혼돈으로 몰아넣었다"고 힐난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그가 2007년 당시에도 제기했던 일종의 '소신 발언'이지만, 부시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형

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어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도전하는 여러 후보 가운데 자신이 '가장 탁월한 군사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도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허용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러시아)가 IS를 격퇴하기를 희망한다면 나는 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지금 최고의 시간을 맞고 있으며,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gija007@yna.co.kr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학군 좋은 보스톤 일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오바마, 재임기간 재정적자 3분의 1로 줄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말 마감한 2015년 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의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4천350억 달러(약 503조5천억원)로 집계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소치로,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최근 6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9년의 재정적자 1조4천억 달러(약 1천620조5천억원)와 비교하면 약 31% 수준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월가 규제 등으로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그 뒤로 경기가 차츰 회복돼 조세 수입이 살아난 데다가 정부기

관의 지출도 긴축되면서 적자폭이 줄었다.

올해 연방정부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개인 소득세 10% 증가를 포함한 세금 수입의 8% 증가가 수입을 늘리는 한 축을 담당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실행에 따라 건강 보조금 지출이 270억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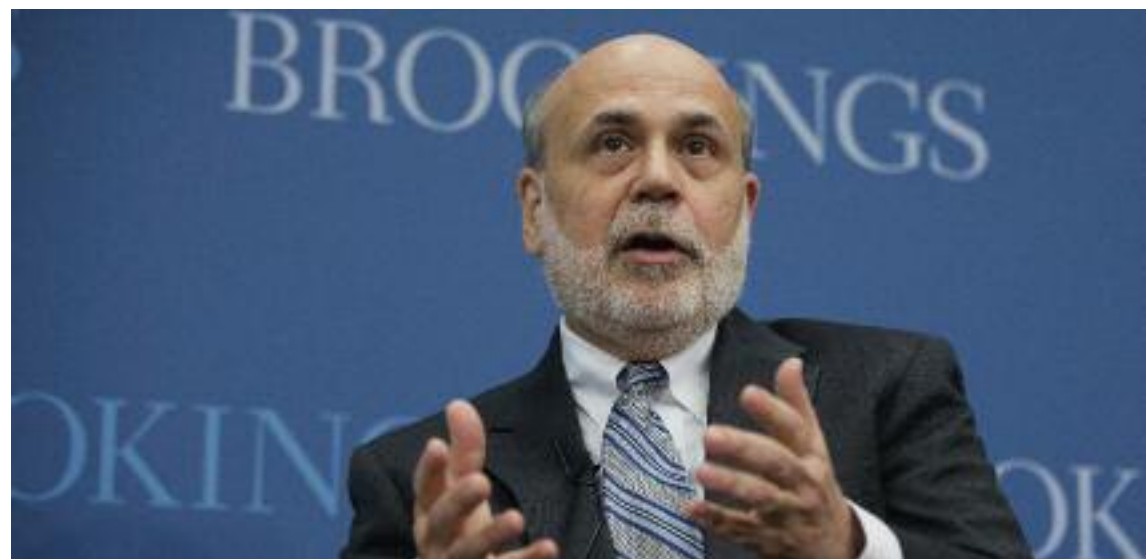
러(약 31조2천500억원)로 두 배가 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지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의회예산국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기관이다. 백악관, 재무부의 정부 공식 회계 보고서는 이달 중순에 발표된다.

jangje@yna.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버냉키 "연준, 신흥국발 충격 파악 몇달 걸려...금리결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전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버냉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8일 자 회견에서 신흥국발 충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준이 파악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국내 경제는 확실히 좋다"면서, 따라서 "신흥시장에서 오는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기가기 때문에, 그 충격을 가능하는데 몇 달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연준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는 연준이 뭐라고 하든 시장

은 '금리 인상이 공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연준 지도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제로 금리' 상황에서 경기를 부추기고자 더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국채를 더 사들이는 것이 "이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연준 금리 인상 시점 관측에서 시장 딜러가 경제학자들 이겼다고 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이체방크와 BNP 파리바도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전망 시점을 내년 3월로 늦춰, 바클레이스와 토론토-도미니언 은행에 합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 4개 은행은 연준과 직거래하

는 2개 '프라이머리 딜러'의 일원이다.

유엔 신용협동조합의 크리스토퍼 설리번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에 "(금리 인상 시점 예측에서) 시장이 경제학계를 선도하게 됐다"면서 "(채권) 수익률이 (실물 경제학자의)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떨어졌다"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도 블룸버그가 전한 최신 보고서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 어쩌면 그 이후로 훨씬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월 첫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은 유지했다.

블룸버그가 전한 최신 선물 금리 추이에 의하면 12월 인상 확률은 37%, 내년 3월 가능성은 59%로 각각 예측됐다.

jksun@yna.co.kr



멕시코와의 국경 펜스 인근을 순찰 중인 미국 국경순찰대

미국 이민자 강제추방 급감...10년간 가장 적어

(워싱턴 AP=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최근 1년 동안 강제추방한 이민자 수가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AP통신이 입수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미국에서 강제추방당한 이민자는 모두 23만1천 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2년보다 약 42% 급감했다.

이 중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는 13만6천700명(59%)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2009년 이래 가장 적었다. 전체 강제추방 대상자 중 범죄자 비율은 전년도(56%)보다 약간 높아졌다.

제니퍼 엘지 미국 이민세관국(ICE)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추방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강제추방 감소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 "강제추방 법령이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엄정하게 집행됐다"는 비판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이민당국이 범죄 경력자의 강제추방에 집중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음에도 오히려 범죄자 추방 건수가 줄어든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범죄자의 불법이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2012년까지 매년 강제추방 이민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2기 정부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전체 추방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범죄자 추방에 집중해왔다.

firstcircle@yna.co.kr

NYT "온라인 수입 2배...2020년 8억달러 목표"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온라인 유료독자 100만 명 돌파의 여세를 몰아 오는 2020년까지 온라인판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NYT 경영진은 7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4년 4억 달러였던 온라인판 수입을 2020년에 8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NYT 마크 톰슨 최고경영자와 딘 베케이 편집국장 이름으로 나온 것으로, 지난 여름 간부들이 낸 전략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NYT는 앞으로 유료 독자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고정독자층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한은 신문이 '가입자 서비스'라고 규정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불만만 저널리즘과 생산품을(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는게 광고주를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 독자의 12%가 온라인

수입의 90%를 담당한다면서, "온라인 수입을 배가하려면 가장 충실한 이런 독자 수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과 해외 독자를 점진적으로 개척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NYT는 종이신문은 여전히 핵심 매체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판을 강화해 '스마트폰으로 매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수품'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SNS)를 통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NYT의 독자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략보고서는 NYT가 지난해부터 온라인판에서 시작한 '요리' 섹션 구독자가 매달 500만 명에 달한다면서 성공 사례로 예시했다.

또 이런 서비스를 부동산, 건강, 영화·TV 분야로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quintet@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릭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볼릭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목요일 11:30AM~12:00AM
103 Prescott St, Cambridge, MA 02142



Map Information

1. 한국문화센터 (Korea Cultural Center) 1000 Boylston St, Boston, MA 02116
2. DDB (DDB Needham) 1000 Boylston St, Boston, MA 02116
3. 한국문화센터 (Korea Cultural Center) 1000 Boylston St, Boston, MA 02116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샬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적이 실어남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청 조기 개각설 '모락모락'... 장관들도 '총선출마' 뜻 확인

여권 관계자 "추석 전후 장관들 '총선출마' 여부 확인"

최경환·황우여·김희정·유일호·유기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만 5명
조기개각 불가, 일부 교체 후 연말 개각설...청 "확인한 적 없다" 부인

(서울=뉴스1) 윤태형, 장용석 기자 =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일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각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청와대가 참모진뿐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비서진과 마찬가지로 자천타천으로 총선 출마가 알려진 일부 장관들에 대해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비서진·장관에 대한 교체는 정무적 판단과 당선가능성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에 이어 이번엔 정부 부처 장·차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연말에 '일괄 개각설' 또는 일부 부처 장관들을 먼저 교체

하는 '순차 개각설'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 출마 희망자 전원에 대한 '일괄 조기개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 모두 5명.

이들 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청와대 이병기 실장에게 전했다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올해 노동개혁·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제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최 부총리는 연말이전에 교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유일호 국토부·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임명된 지 7개월 남짓이어서 교체에 대한 부담도 큰 분위기다. 지난 3월부임 이후 담당 부처의 예산안이 처리되는 첫 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총선을 위해 퇴진하는 것은 아무

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우여 장관은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후 총선 준비에 나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 교과서' 문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돼 황 장관의 조기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김희정 장관과 유기준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종섭 행정자치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도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겸직 장관들의 선수와 지역구를 살펴보면, 5선인 황 부총리가 인천 연수, 3선인 최 부총리와 유기준 장관은 각각 경북 경산·청도와 부산 서구, 그리고 재선인 김 장관은 부산 연제, 유일호 장관은 서울 송파읍이다.

이 가운데 황 부총리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는 내년 총선에서 분구(分區)가 예상되며, 지난 5일 사의(辭意)를 표명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황 부총리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을 먼저 교체하고 연말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후속 개각을 단행하는 '순차개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부총리 후임으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황 부총리 후임으로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의 이름이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단속하긴 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수시로 지역구를 찾아 총선 재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이 총선 출마가 임박한 장관들을 '개인의 행로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불잡아 둘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4대 구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일부 부처는 개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가시적 성과'를 독려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는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문제 등 내각에 주어진 숙제들이 산적한 상황.

이에 일각에선 올 연말까지는 개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 개각' 전망에 대한 물음에 "들은 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birakoca@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ey College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9TH - OCT. 15TH, 2015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Hmart 콜럼버스데이 바베큐 세일전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COLUMBUS DAY BARBEQUE

SINCE 1982 Festival PREMIUM QUALITY

Columbus discovered America, you discover the savings.
 Fall BBQ specials are waiting.

콜럼버스데이 바베큐도 H마트와 함께 하세요.

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5.29oz. x 4cans/pkg. **\$7.99**

HAITAI Honey Tong Tong
 해태 허니통통 2.29oz. **\$1.99**

DAMIZEL Korean Traditional Tea with Nuts
 다미즐 호두 아몬드 울무차 50cnt/pkg. **\$9.99**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79**

Ginger 생강 lb. **\$1.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79**

Fuyu Persimmon 단감 박스 box **\$17.99** (FRI/SAT/SUN ONLY 9/10/11 ONLY)

Dried Fuyu Persimmon 꽃감 lb. **\$5.99** (FRI/SAT/SUN ONLY 9/10/11 ONLY)

JINGA Tofu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 **\$0.99** (FRI/SAT/SUN ONLY 9/10/11 ONLY)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Ox Tail 생소꼬리 lb. **\$10.9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lb. **\$7.99**

Beef Heel Meat 소 사태살 lb. **\$7.99**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lb. **\$9.99**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 lb. **\$5.99** (FRI/SAT/SUN ONLY 9/10/11 ONLY)

Salted Atka Mackerel 명동 자반 임연수 lb. **\$3.99** (FROZEN)

Mussel Meat 명동 홍합살 lb. **\$4.99** (FROZEN)

TONG TONGBAY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80-100's/10 lbs. - box **\$27.99** (FROZEN)

Cooked Whole Whelk 냉동 꾀질 굴뱅이 lb. **\$3.99** (FROZEN)

TONG TONGBAY Bok Kum Anchovy 통통배 갈송과들 가족용 류듬멸치 Medium/5oz.-pkg. **\$5.99** (FROZEN)

日本食の **2015 JAPANESE FOOD FESTIVAL** **일본 대표음식 모음전**

H마트와 Wismettac Asian Foods가 준비한 일본 대표상품 모음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료사은품 증정!
 행사 상품을 구입하시면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무료 사은품을 드립니다.
 Free gift with a purchase of our special event sale items. (FREE GIFTS vary upon your item purchase value)

OCT. 9th - 11th, 2015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Kyong Gi Rice 경기미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경기미 40 lbs. **\$29.99**

HARU HARU Medium Grain Brown Rice 하루하루 현미 15 lbs. **\$9.99**

HAIORE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Original/Parae - 0.15oz. x 8ea./pkg. **\$2.99**

BEKSUL Beef BBQ Sauce 백설 사리원 불고기/갈비양념 16.93oz. **\$3.99**

WOONG JIN Morning Rice/Green Plum Drink 웅진 아침햇살/조룩매실 1.5L **\$2.99**

SPAM HORMEL FOODS Spam All Varieties/12oz. **\$2.99**

케이타운 떡볶이 KTOWN Dukboki All Flavors/1.07 - 1.32 lbs. **\$4.99**

HAIOREUM Dumplings Bukkyung/Veg./Kimchi - 2.65 lbs. **\$4.99** 해오름 만두

스캇 화장지 SCOTT Bathroom Tissue 20rolls/pkg. **\$13.99**

HELLO HOME Fry Pan 헬로홈 후라이팬 30cm/ea **\$6.99**

Floral Printed Ceramic Tea Pot Set 꽃무늬 세라믹 5인용 다기 세트 **\$9.99** Red/Blue/6pcs - set

Floral Patterned Sitting Cushion 꽃무늬 자가드 방석 ea. **\$3.49**

한 입 갖고 세 번 말바꾼 김대표 청와대 사냥은 끝났다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건다", "전략공천은 절대로 안 한다" "당헌당규가 정한 우선공천은 할 수 있다" 모두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오픈프라이머리)고 말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이다. '싸나이 한 입 갖고 벌써 세 마디다. 대표 꼴이 말이 아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부러지지 않고 굽어진다'는 김 대표는 계속 후퇴하며 청와대와 확전을 자제하지만 우선공천 지역에서 대구는 제외해야 한다. 반면, 청와대는 대구 물갈이를 원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초선 대구 의원들을 숙아 내고 퇴임 후를 준비한 포석이다. 김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켜 대선 체제를 본격화 하려 한다. 정치는 어짜피 대결이다. 총선 후 레임덕이나, 김 대표의 퇴진이나가 이 싸움에 걸려있다. 박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방문 시 반기문 사무총장을 7번이나 만났다. 두 사람 말이 안통해 7번이나 만났을까. 박 대통령의 대국에는 반 총장도 주요 포석이라고 볼 수 밖에.

우선추천지역 논란 중심에 'TK'가 있는 이유는?

역대 선거 '새누리당 공천=당선'...비박·친박 공천 대결 치열 예상
청와대 발 'TK 물갈이론'에 지역 정가 들쭉
김무성측 "유승민 도와달라" 지원 요청...TK 정치권은 관망 중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새누리당을 요동치게 하는 '공천을 전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우선추천지역'에 대구경북(TK)이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측근은 전략공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우선추천지역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여당 강제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는 "전국 어디든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TK"는 새누리당으로선 '절대 우군' '지역이자 선거때면 수확이 가장 많은 텃밭이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말은 다양성이 부족한 TK의 정치 정서를 비판하는 뜻이지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현상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

우선공천지역을 두고 유독 TK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TK에서의 새누리당 후보 당선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데 있다.

우선추천 후보로 공천되는 데 힘을 쏟은 쪽이 자기 사람을 20대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19대 총선 공천정국에서 대구 12명 의원 중 7명은 불출마하거나 낙선했고 이 자리를 거의 전략공천 후보로 내세웠음에도 전부 당선됐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TK 정치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이른바 '물갈이' 설이다.

청와대와 친박계에서는 대구 의원들이 현 정부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뒤뚱수 치는 격'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도 한다.

그 발단은 이른바 '유승민 사퇴 파

문'이다.

대구 초선 다수가 지난 6.7월 '거부권 파동'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막는데 힘을 모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당사자로 지목된 유 전 원내대표는 물러났고, 지난달 박 대통령은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 지역 의원들을 부르짖고 TK 출신 청와대 참모진을 대동했다. 현재 TK지역이 '현역 물갈이론'과 '청(靑)차출설'로 들쭉이는 이유다.

게다가 대구의 다수 의원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지지했고, 플랜B로 제시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다.

당내 주류이지만 19대 국회 들어 당내 각종 선거에서 번번이 패하면서 수적 열세를 확인한 친박계로선 당선쉬운 TK에 '아군'을 포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우선추천지역에 'TK'가 해당되나 마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청와대와 친박계의 집중 견제를 받고 코너에 몰

린 김 대표는 최근 측근들을 통해 유 전 원내대표에게 국민공천에 대한 지지와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와 '사회적경제'를 주창한 당내 중도 우파이자 TK에서는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추석 연휴 이해훈 전 의원이 유 전 원내대표를 찾아 김 대표를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유 전 원내대표는 "좀 지켜보자"고 답했다.

대구 의원들은 본인들이 전략공천으로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도 대구경북을 '주머니 공깃돌 만지듯' 전략공천지역으로 하는 것에는 지역여론의 반감이 크다고 전하고 있다.

전략공천의 과거 수혜자지만 전략공천의 미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한다. 그래서지 공천률과 관련해서는 TK 의원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dearpure@news1.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와 관련, 인정을 받고 있다

'우선추천지역'으로 논란 전이... 'TK·강남 포함되냐' 공방

친박 "우선추천에 TK도 예외없어" vs 김측 "우선추천은 2가지 예외에 한정" 모든 폭탄 공천 특별기구가 떠났는 형국...인선 진통 이어져

(서울=뉴스1) 김영신, 이정우 기자 =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권력 갈등이 '우선추천지역'으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6일에도 친박(박근혜)계와 김무성 대표 측과의 공방이 이어졌다.

사실상 전략공천이라 불리는 우선추천지역에 대한 해석, 특히 '물갈이론'의 진원지인 대구·경북(TK)지역이 우선추천지역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계파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입장이 일보씩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김 대표는 "전략공천은 없다"는 대전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며 우선추천지역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친박계에서는 전국의 어떤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 TK 물갈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

새로운 논란의 핵심인 우선추천지역은 지난해 2월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 개정된 당헌에서 규정한다.

새누리당 당헌은 '상향식' 공천을 규정(제99조)하면서도 제103조를 통해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남겨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복70주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추천지역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에 대해 "(2014년 2월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된) 상임전국위의 회의록에 답이 다 나와있다"고 했다.

당시 평의원으로서 유력 당권주자

였던 김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전략공천 여지가 남아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 대표 등 일부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우선추천지역을 2가지 경우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한다'는 단서 자구로 절충점을 찾아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

"당시 회의록에 답이 다 나와있다"는 김 대표의 답변은 TK 및 서울 강남 지역은 소수자 배려 및 열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추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뺨기'로 해석됐다.

김 대표 측 김학용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TK나 서울 강남 지역이 어떻게 새누리당의 취약지역이 될 수 있느냐.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며 "그쪽은 우선추천지역이 될 수가 없다. 우선추천지역은 당헌 명문 그대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전국 어떤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나와 "김 대표가 말하는 '전략공천이 없다'는 것에 모든 분들이 동의한다"며 "김 대표가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지역을 수용한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우선추천지역 범위를 두고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TK가 됐다 강남이 됐다 어느 지역이든 전략적으로 우선추천지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좋은 후보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공천 논란에서 친박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연이어 "우선추천지역에서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이자 집권여당인데 대구는 빼고, 서울은 빼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게 최상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수혈

하지는 의미이지 정치보복성의 물갈이를 의미하는 전략공천은 당헌당규 상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게 분명한 현실"이라고 했다.

대통령 정부특보인 김 의원은 다만 "전날 청와대 대변인과 경호실 차장의 사의표명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정리는 청와대 비서관 중 더이상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 더이상 없다는 것"이라고 청와대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TK는 우선추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해 원 원내대표 및 홍 의원과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완전국민경선제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다시 우선추천지역으로 국면이 연이어 달라지면서 결국 모든 논란은 조만간 출범할 공천제 특별기구로 모두 옮겨붙고 있다.

친박계든 김 대표 측 등 비박계든 특별기구에서 나오는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탓에, 특별기구에서 말 그대로 '물갈이'가 불가피해보인다. 이런 탓에 공천제 특별기구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도 이날 이어졌다.

eriwhat@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야"아버지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국정교과서 총공세

박 대통령 정면 공격...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

"여,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지지층 강화· 단결 효과 노려"

정권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게 법개정...제도개선공청회 제안도

(서울=뉴스1) 박태정, 조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다음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 개정까지 예고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중립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 공청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 전략도 가다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야당의 총공세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념대결이라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아버지(박정희 대통령)는 친일과 중용, 딸(박근혜 대통령)은 극우와 중용, 그리고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고 박대통령을 직격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민교육이 아니다. 시민교육이다. (시민을)신하로, 백성으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의 도구화"로 규정하며 "고작 현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규정하기 위해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면피의 정치이자 기억의 권력화"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이유가 균형잡힌 역사인식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1974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정교과서 제도 도입했을 당시 국민을 호도했던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한다"며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속는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2015년 10월 가을은 1972년 유신시절 가을과 똑 빼닮아 우울하고 잘못된 역사의 길로 가는 것 확연히 느껴진다"(교문위 소속 윤관석 의원), "북한이 국정교과서인데 왜 북한을 따라하려는 지 이해가 안간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복행위다. 북한 따라하기 중단하라"(최민희 의원) 등 여론전에 치중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를 이 역사교과서 교과서 문제로 돌파하면서 물타기하려는 그런 알팍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길게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른바 보수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강화, 단결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정기국회까지도 보이콧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실상만 안다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갇혀버린 사실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절차도 다 진행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국회는 입법이 중심인 만큼 (이 때문에) 최근 우리가 장외집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는 국민적 측면서 어떤 것보다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며 장외 투쟁도 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담은 입법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적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중차대한 아젠다(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육부 고시로서 변경하기 때문에 그 정권 또는 부처에 재단에 의해 함부로 꺾인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중고 교과서 발행체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고시로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할 수 없다"며 "이런 고시로 돼 있는 현행 근거 규정, 법규범을 정권이나 정부 부처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게 법률화

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화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라며 "다음주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국정화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도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국정화 발표 중단 △이달 중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제도개선 공청회 실시 △심층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건 발행형식이나 주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것은 역사관의 확립이나 다양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ptj@news1.kr

여 국정역사교과서 속전속결...당 내홍 봉합· 보수결집 노린 듯

여 당 특위구성...정 내주 국정화 여부 발표...주말 당정협의 '착착'

이념논쟁으로 보수 결집 총선 승리 겨냥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국민통합'을 논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다음주 중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은 오는 주말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대 총선거 공천물을 두고 청와대·친박계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홍이 희석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6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일찌감치 이념논쟁에 불을 붙여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한편 불안한 당·청관계를 회복하고 공천물 내홍에 쏠린 이목을 분산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이번 국정화 논란에 깔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큼은 당·청의 이해가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재평가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당의

오랜 노력이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뤄낼 수 있고, 무엇보다 이념전쟁의 성격이 짙은 이번 국정화 논란 속에서 보수의 결집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새삼 시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연일 좌편향 집필진 문제를 거론하며 색깔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상태에서 힘의 논리로 가져가는 것도 옳은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8일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지

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를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돌파하면서 물타기하려는 알팍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전 최고위원과 대동소이하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매도하고 있다면서 '신과소' '역사쿠데타' 프레임으로 총력저지에 나섰다. 국정화 발표를 중단하고 제도개선 공청회와 심층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비정상적 정상화' 중 하나로 봐달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정부의 국정화 발표 저지 총공세에 나선 야당이 장외투쟁과 여론전을 계획하면서 지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이은 여야의 이념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dearpure@news1.kr



역사왜곡저지 대전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감 마지막날...부실 오명 속 교문위 국정역사교과서 총돌

교문위 여야 의원들 고성·막말 언쟁...1시간30분 동안 질의도 못들어가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 수순에 들었다.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이날 1일부터 8일까지 사상 최다인 708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던 여야는 이날 11개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마지막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예년과 다름없어 부실·속속·호통 국감에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빛이 바라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시작하며 생산적인 민생 국감을 만들 것을 다짐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따른 파행, 쟁점 사안에 대한 삿대질과 고성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국회는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가동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하

고 나섰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쿠데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배 의원의 말을 문제 삼았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와 관련 없는 의사진행 발언은 제지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딸은 역사 쿠데타, 이런 말은 왜 못 합니까"라고 되받아 치며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국감이 도대체 어디있느냐. 교육부가 국감을 능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로 여야 의원들은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신경전을 벌였고 국감장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교문위 국감은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지났음에도 본 질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sanghwi@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오븐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고영주 파문...야 "해임" 대통령 겨냥 여론전, 여 무대응

야 지도부, 일제히 언론 인터뷰 등 통해 여론전
여, 무대응 기조 유지...일각선 '고영주 비판' 기류 감지

(서울=뉴스1) 김현, 김영신 기자 = 여야는 8일 이념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둘러싸고 '대치 모드'를 이어갔다.

야당은 연일 고 이사장의 이념편향적 발언을 부각시키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면서도 고 이사장의 발언 파문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해임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전을 폈다.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고 이사장의 사퇴 또는 해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고 이사장에 대한) 인사의 과정을 보면 거의

대통령 관할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YTN라디오에 나와 고 이사장이 정부 내에도 '김일성장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거론, "(고 이사장은)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라며 "1차적으로 고 이사장 자신 사퇴, 2차적으로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촉, 최종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박 대통령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또 다른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 검찰에도 10명 중 8명이 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제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MBC를 경영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

서 적합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고 이사장 같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시대착오적 이념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부정하려는 퇴행적 사고와 행동을 부끄럽없이 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고 이사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을 자제하며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 이사장과 관련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 공개, 비공개 등 고 이사장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선 고 이사장을 향해 불편해 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 나와 "자연인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로서 때로는 자신의 정치소신이나 주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지만, 공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 이사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집권당 의원이 사퇴까지 촉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도 "자신이 물의를 일으켰다면 자신이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고 이사장 파문과 관련, "그분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재오 의원은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 이사장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교체되기 이전 신영복체로 제작된 대통령 기록관 현판

'신영복체 현판'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한다고 떼내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글씨체로 제작된 대통령기록관 현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된 경력이 있는 신 교수의 현판을 떼지는 보수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이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는 2013년 10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기록관에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교수가 작성한 현판글씨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글씨체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애초 대통령기록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난해 5월 26일 개최된 제1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는 이를 주요안건으로 다뤘고 현판은 12월 교체됐다.

대통령기록관이 임 의원에 제출한 '제15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로 당장 현판을 교체하게 되면 좌파정권의 기록물을 의식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좌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

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있는 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편향성까지 보인 것으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어 현판을 교체했고, 국가기록원 산하의 기록관 현판을 통일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8년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됐을 때는 부처의 이름만 바꾸고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는 사용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수경 의원은 "산적한 기록물관리 과제들은 뒤로 미룬 채 좌파 운운하며 현판을 바꾸어 한다는 논의에 열을 올리는 위원회의 자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적 잣대에 매몰돼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1.kr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리-패터슨 모두 공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힐 재판이 사건 발생 18년 만인 8일 처음 열린 가운데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아버지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둘 다 공범"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다.

1시간30분쯤 진행된 이날 재판을 참관한 조씨의 아버지는 "리와 패터슨 모두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하게 패터슨도 불쌍하고 리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은 무슨, 칼을 갖고 있으면 나도 죽이고 싶다"며 그간 가슴 속에 묻어뒀던 억울함을 쏟아냈다.

아버지 조씨는 "이 사건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지난 18년 동안 매일 술 먹고 다녔다"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참여재판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추후 의견을 말하기로 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법정 안에서 (패터슨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두들겨팼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패터슨이 한국에 올 때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알고 있고 공정하게 재판이 열려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며 "패터슨은 사람도 아니며 죄진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을 놓친 틈을 타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도망을 안 갔다고 변론을 하느냐"며 "자기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변론할건지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떨린다"고 패터슨 측 변호인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조씨의 부모는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을 텐데 괜찮느냐"는 질문에 "그래도 계속 올 것"이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패터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은 10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한자·일본식 표현 한글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궁박(窮迫)→궁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각(除却)→제거 등으로
'최고(催告)→촉구, 구거(溝渠)→도랑, 대안(對岸)→둑 등으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민법이 제정 57년 만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글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표현 중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1118개 조문 중 1056개 조문을 정비했다.

대표적인 일본식 법률 용어인 '궁박(窮迫)', '제각(除却)', '기타(其他)', '요(要)하지 아니하다' 등은 각각 '궁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거', '그 밖의(에)', '필요하지 않다' 등으로 개정됐다.

또 일상 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 표현들도 쉬운 우리말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최고(催告)', '구거(溝渠)', '언(堰)', '대안(對岸)', '후폐(

朽廢)한', '포태(胞胎) 등 일상 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는 '촉구', '도랑', '둑', '건너편 기슭', '낱아서 슬모없게 된', '임신'으로 교체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다만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뜻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단어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적기로 했다.


haru@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5.8888
SeoulFoodBar.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서비스	가격	비고
1. 머리 염색	\$35	머리 염색
2. 퍼마	\$45	머리 퍼마
3. 트리트먼트	\$25	머리 트리트먼트
4. 샴푸	\$10	머리 샴푸
5. 드라이	\$15	머리 드라이
6. 스타일링	\$15	머리 스타일링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짜마 70불 부터
디자깅 130불 부터/개머린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장학 연구생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The Word Is Out...

**No One Markets
Like Hammond**

집을 사고 팔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어렵게 생각마시고
지금 연락주세요!

Kalin Bae (배경은)
617-881-1542
kbae@HammondRE.com

Uni Joo (주윤희)
508-641-8924
ujoo@HammondRE.com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www.HammondRE.com • www.HammondMagazines.com • www.HammondVideos.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KPOP 90's LEGENDS SUPER CONCERT

DJ DOC, COOL, JINUSEAN, R.ef, JO SUNGMO, KIM WONJUN, CLON, CHULI & MIAE

www.kpop90.com

THE THEATER
AT
MADISON SQUARE GARDEN



8PM SAT OCTOBER 31, 2015
4 Pennsylvania Plaza, New York, NY 10001

★ Tickets available at : [ticketmaster](http://ticketmaster.com) Ticketmaster.com / 교차로 718-460-0114



New Revolution
Entertainment Inc.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두안 다블뤼 한인성당은
새롭고 사순 위한 교리반이
개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안내

주일미사:
10:00 am (영어)
11:30 am, 4:30 pm (한국어)

평일미사:
화요일 10:30 am (한국어)
목요일 7:30 pm (한국어)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55
office.keeb@gmail.com
www.stdaveofuye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 삶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City of Concord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 주일예배: 오후 10:00 | 금오 기도회: 저녁 7:10

주요인사: 박기현, 박기철, 김기호, 김민서, 김동진, 김민아, 김민호, 김민서

담당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3-0571 | 팩스: (781) 643-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www.ganain.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탈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8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명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AJ.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학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회 예배	각 구회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9-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장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Certified Course Examiner

데스커 US 월드 리빙 프로
보스턴 한인 유망의
공인 코스 심사위원
sj.usgwf@gmail.com

857.600.675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이 나사렛에 태어 전에 마태의 말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공생, 부활에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양예배: 주일 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유복예배: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97
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의임을 지켜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매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info@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샵 튜터링

Nabis Studio

© 2015 Tufts Health Plans, Inc.

새로운 이름, 같은

ké
coração
마음.
corazón
heart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가이제 간단하게 Tufts Health Plan 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객에 대한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tuftshealthplan.com.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과보나
변호사

Yael We
국제법 스터

박계영
시니어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99,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410sf.
플레이룸, 오피스가 있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Townhouse
\$273,900
Maynard, MA
2 Beds, 1.5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대 / 2012년 100대 부동산 회사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 1000 에이전트 / 1000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3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셧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버스피 OPPS 54125번
WWW.OPPSHUB.COM

서비스 분야: 다양한 분야의 오버스피 서비스, 컨설팅,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
서비스 분야: 컨설팅,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

617-202-3808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40 October 9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307

태양자동차 새로운 모습으로 뻗는다

태양 자동차(Sun Auto Body & Repair)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617-868-2500
sunautobody@yahoo.com

Welcome, **YTN**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10 TV의 2인치 크기

YTN 과 어린이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5.1로 방송도 möglich 하는 3.5인치 무한대 시청

방송3시와 케이블 함께 계약
월간료 7만 원 이상 시 30% 할인

무제한 시청료 \$39.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20여년 간 보스톤 지역 자동차들을 정비해온 태양자동차(사장 손석구)가 기존의 장소(메드포드)에서 캠프리지 소재 프레쉬 폰드 몰(The Fresh Pond Mall) 뒷골목 뉴 스트리트(New Street)으로 정비소를 옮겼다.

손 사장은 "전 메드포드 정비소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새로 이사 온 곳은 더 한적하고 찾아오기 편한 곳이다" 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갖게 된 자동차 수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해 40여년 동안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해 온 손 사장은 이제 아들 손준엽씨에게 업소를 물려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손 사장은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 것이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다. 태양자동차는 자동차의 바디, 엔진,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타이어, 오일 체인지, 스테이트 인스펙션(State Inspection) 등 어떤 수리도 가능하다.

손 사장의 아들 손준엽 매니저는 "1990년 모델 이후의 어떤 자동차도 문제없이 수리할 수 있다" 고 자신 있게 말했다. 사업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아들의 모습에 손 사장의 마음은 그저 든든할 뿐이다.

손준엽 매니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의 일을 보고 배웠다" 며 "웬만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편이다" 고 전했다.

손 사장의 힘과 실력은 보스톤에 거주하는 웬만한 한인들은 알고 있을 만도 하다. 매년 고장 난 자동차를 수리하고 고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손

손 사장은 "지금까지 태양자동차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며 "태양자동차는 아들 손준엽 매니저와 함께 새로 태어날 것 입니다" 고 전했다.

이어 손준엽 매니저는 "아버님에 비교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점도 많지만 아버님의 피와 땀을 이어 더욱 열심히 태양자동차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 전했다.

태양자동차의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며 토요일은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jham@bostonkorea.com



사장은 '자동차 의사' 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손 사장은 아직까지 태양자동차를 이용했던 고객들로부터 "마이다스의 손" 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다.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ll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시, 담임목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기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화도도연맹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둔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둔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이 베냐민교회	978-274-2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 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형제역직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국제보석사	617-523-2553
미태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아이유 "장기하와 만난 지 2년, 평범한 연애 중"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아이유가 장기하와의 열애를 직접 밝혔다.

아이유는 8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 '유애나'에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요.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신다면 또 그러지 못한 것도 미안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만난 지는 2년 가까이 돼 가요.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고마운 남자친

구예요. 좋고 싸우고 섭섭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라고 장기하와의 열애를 직접 인정했다.

그는 "제 마음부터 걱정하고 살피주시는 우리 유애나 정말 고맙고요. 모든 걱정들 응원들 서운함들.. 다 미안하고 고마워요"라며 "저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요. 또 올게요"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아이유의 글 전문이다.

유애나! 저는(하필) 뮤지 비디오 촬영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기사에 놀랐어요. 하지만 저보다 놀란 건 아마 유

애나겠죠?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요.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신다면 또 그러지 못한 것도 미안해요.

만난 지는 2년 가까이 돼 가요.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고,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고마운 남자친구예요. 좋고 싸우고 섭섭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했는데 디스패치에게 선수를 뺏겼네요. 하하. 갑작스럽지만 공개 연애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른 척해도 이 공간

에는 얼마간 어색한 기운이 돌겠죠? 이 유쾌하고 복잡 귀여운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부터 걱정하고 살피주시는 우리 유애나

정말 고맙고요. 모든 걱정들 응원들 서운함들.. 다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 수천번 시뮬레이션을 돌린 상황인데도 막상 닥치니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일단 저는 당장의 제 일을 썩썩하게 하고 있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요. 또 올게요

reddgreen35@news1.kr



소지섭 · 신민아 주연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서울=뉴스스타) 백초현 기자 = 배우 소지섭과 신민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KBS2 드라마가 '오 마이 비너스'로 제목을 변경했다.

KBS2 월화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후속으로 방송될 '오 마이 갓' (가제)는 '오 마이 비너스'로 제목을 확정짓고 오는 11월16일 시청자와 만난다.

'오 마이 비너스'는 열쌍에서 몸짱이 돼버린 여자 변호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인 남자가 만나 다이

어트에 도전하면서 감춰져있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을 담는다. 드라마는 외적인 모습에 아닌 내면의 모습까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는 새로운 장르의 '헬스힐링 로맨티코미디'다.

무엇보다 '오 마이 비너스'는 방송 전부터 소지섭과 신민아 두 배우의 만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소지섭은 할리우드 배우 못지 않은 몸매로 베일에 감춰진 트레이너 김영호 역을 맡는다. 신민아는 몸짱으로

역변한 여자 변호사 강주는 역으로 등장해 극강의 망가짐을 불사하며 열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 마이 비너스'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선보인 김형석 연출과 KBS 단막극 '내가 결혼하는 이유'로 필력을 인정받은 신예 김은지 작가의 조합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제작진은 "'미의 여신' 비너스가 현대사회에 실존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미의 기준에는 미달일 것이다. 드라

마가 '미의 여신'의 질투를 받은 듯 한 여주인공의 캐릭터로 잡아보면 어떨까하는 발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목을 '오 마이 비너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남자가 다이어트를 통해 외적인 모습은 물론 서로의 상처까지 치유하게 되는, 힐링과 건강이 함께하는 드라마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oolchoya@news1.kr



'옥자', 캐스팅만큼 뜨거운 영화 탄생할까

(서울=뉴스스타) 온라인 뉴steam = '옥자'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자 예비 관객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을 비롯해 제이크 질렌할, 폴 다노, 빌 나이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봉준호 감독이 쟁쟁한 배우들을 데리고 어떤 작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연예 매체 더 랩은 6일 봉 감독의 차기작 '옥자' 캐스팅 소식을 전했다. 우선 제이크 질렌할은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과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나이트 크롤러' 등으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배우다.

폴 다노는 '러브 앤 머시', 빌



나이는 '러브 액츄얼리' 등을 통해 한국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서 인상적 연기를 보여준 틸다 스윈튼도 전작의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은 틸다 스윈튼은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 초반이라 아

직 말씀드릴 게 별로 없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옥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촬영되는 괴수 영화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내년 초 크랭크인 예정이다. star@news1.kr

유승호 '상상고양이'로 제대 후 첫 브라운관 복귀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유승호가 브라운관 복귀작을 결정했다. 유승호는 오는 11월 말 MBC에브리원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상상고양이'를 통해 촬영을 마친 두 편의 영화보다 먼저 브라운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유승호가 제대 후 첫 복귀작으로 선택한 MBC에브리원 '상상고양이'는 고양이와 인간의 동거를 다룬 인기 웹툰 '상상고양이'를 원작으로 한 국내 최초 고양이 소재 드라마. 유승호와 고양이가 만들어낼 특급 비주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진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를 인간이 생각하는 고양이, 고양이가 생각하는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해 재미와 함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평소 자신이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애묘인으로 널리 알려진 유승호가 고양이와 선보이는 첫 연기 도전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9월 28일 ~ 10월 4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6.2%
2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5.7%
3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19.9%
4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19.4%
5	KBS1	KBS9시뉴스	17.2%
6	MBC	주말드라마(엄마)	15.1%
7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14.6%
8	SBS	일일드라마(돌아온황금복)	14.0%
9	SBS	정글의법칙(니카라과)	13.7%
9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3.7%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3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6	SBS	월화드라마(미세스캡)
7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8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9	SBS	주말특별기획(애인있어요)
10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머느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또 다시 사랑	임창정
02	바람이나 좀 쐬 (Feat. MIWOO)	개리
03	어깨	소유, 권정열
04	취향저격	iKON
05	보통연애 (Feat. 박보람)	박경 (블락비)
06	레옹	박명수, 아이유
07	겁 (Feat. 태양)	송민호
08	커피 (Prod. by G-Park 박명수)	유재환, 김예림
09	Dumb Dumb	레드벨벳
10	오늘부터 우리는 (Me Gustas Tu)	여자친구

숫자 퍼즐 (Sudoku)

6		4		3				2
	1				8			3
	3		7	4				9
	6				7			
4		8		5		3		6
			8				5	
1				8	9		3	
7			3				8	
8				7		2		1

10월 11일 - 10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신용의 중요성을 알고</p> <p>● 운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공적인 관계에서는 신용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의 중요성을 알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 금전: 다른 때보다 부지런히 활동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뛰는 자에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 애정: 속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좋아해도 상대가 알지 못하니 오해가 생깁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1, 16일 길일, 12, 13일 주의.</p>	<p>소띠 마음을 이해해주어야</p> <p>● 운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달게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 금전: 지출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 믿고 소비해 버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 애정: 다가오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려면 지금이라도 각별히 신경 써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범띠 새로운 경험이 줄을 잇는</p> <p>● 운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과 사귀고 좋은 정보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투자에 있어서 크게 손대지 말고 작게 투자하면 생각한 만큼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 애정: 평소 결혼이나 연애의 상대로 이리저리한 사람이면 좋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해 두었던 상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3, 17일 길일, 11, 14일 주의.</p>
<p>토끼띠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p> <p>● 운수: 남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을 계획을 한다거나 성공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금전: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침내 하는 일이 발전하게 되니 큰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사랑에 흠뻑 빠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용띠 때론 넘치고 때론 모자라는</p> <p>● 운수: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론 넘치고 때론 모자라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 금전: 개업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 개업하면 금전적으로 무리가 될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속으로는 늘 젊음에의 동경과 낭만적인 애정을 꿈꾸는 법입니다. 상대를 이해해 주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뱀띠 분위기의 밝게 만들어야</p> <p>● 운수: 우울하고 침체되기 쉽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 신경 써서 변화를 주고 가정의 분위기의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 금전: 확실한 정보가 손에 넣기 전에는 섣부른 행동이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상에 잠기거나 정의 포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까.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말띠 하늘이라도 오를 듯이</p> <p>● 운수: 하늘이라도 오를 듯이 의욕이 왕성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볼 날처럼 따뜻합니다. ● 금전: 팔기를 원하면 좋은 가격에 팔게 되고 사려고 마음먹은 것은 산 가격에 사게 되는 운세입니다. ● 애정: 두 사람만의 데이트를 한다든가 둘이 마주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핑크빛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6일 주의.</p>	<p>양띠 자신을 사랑해야</p> <p>● 운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 자칫하면 다 포기하는 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 놓고 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애정: 이성교제는 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칭찬이나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원숭이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p> <p>● 운수: 뒷사람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아 착실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단,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금전: 가만히 있으면 소득이 없으나 나가서 움직이고 활동하면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 애정: 함께 사는 배우자는 항상 소중한 존재이며 가까우면서도 존중해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안 분위기가 밝게 바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5일 길일, 14, 17일 주의.</p>
<p>닭띠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p> <p>● 운수: 무슨 일이든 얼렁뚱 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하겠습니까. ● 금전: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결국 행운의 여신은 내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 애정: 아직은 바람기가 상대방을 불행으로 빠뜨리다가거나 결혼생활이 파과될 정도로 이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그만 두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6일 길일, 15, 17일 주의.</p>	<p>개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p> <p>● 운수: 앞을 내다보는 안목만 지니고 있다면 말은 일을 큰 장애가 없이 진행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 금전: 배포가 큰사람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 애정: 다정다감하고 깊이 있고 믿음직한 사랑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좋은 상대자가 나타나게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7일 길일, 12, 16일 주의.</p>	<p>돼지띠 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p> <p>● 운수: 주위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도리어 잃게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모든 면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변화를 하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한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시기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6일 길일, 11, 17일 주의.</p>



빅뱅, 두 번째 북미투어 잇따라 매진

(서울=뉴스스타) 박건욱 기자 = '그룹 빅뱅이 두 번째 대규모 북미투어 공연을 잇따라 매진시켰다.

빅뱅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이벤트 센터(Mandalay bay event center)를 시작으로 3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Staples center), 4일 애너하임 혼다센터(Honda center) 등 총 3일간 3개 도시에서 3만석 이상의 객석을 모두 매진 시키며 월드투어 'MAD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빅뱅이 북미에서 콘서트 투어를 갖는 것은 지난 2012년 'ALIVE GALAXY TOUR' 이후 3년만이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와 애너하임, 뉴저지, 페루 등 2개국 4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빅뱅은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 뉴저지,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 멕시코 시티 등 3개국 6개 도시로 그 규모를 확대시켰다.

3년 전에도 한국 가수 최초로 북미에서 아레나급 규모의 콘서트를 개최했던 빅뱅은 이번에도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두 번째 대규모 아

레나급 콘서트를 개최하며 북미에서 공연으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된 공연에서는 인기 그룹 블랙아이드피스를 비롯해 현지 셀럽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4일 애너하임 혼다센터에서 개최한 미국 서부투어의 마지막 공연 역시 1만석 규모의 공연이 매진되며 대성황을 이뤘다.

kun1112@news1.kr



태연, 아이튠즈 전세계 13개 지역 1위

(서울=뉴스스타) 권수빈 기자 = 태연의 첫 솔로 앨범 'I(아이)'가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태연 첫 솔로 앨범 'I'는 홍콩, 태국,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전 세계 13개 지역 아이튠즈 종합 앨범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스웨덴·일본 2위, 멕시코·포르투갈·헝가리 3위, 뉴질랜드·핀란드·콜롬비아 4위, 미국·캐나다·캄보디아 5위 등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TOP 5에 올랐다.

아이튠즈의 장르별 카테고리인 팝

앨범차트에서는 아시아 11개 지역을 비롯해 미주 3개 지역, 스웨덴, 멕시코까지 총 16개 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 2위, 호주·스페인·핀란드·칠레·인도·가나 3위, 아일랜드·러시아·브라질 5위, 프랑스·터키 6위 등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팝 앨범차트 TOP 10에 랭크되는 저력을 과시했다.

더불어 태연은 타이틀곡 'I'로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엠넷뮤직, 소리바다, 몽키3까지 8개 음원 차트 실시간 1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활약에 더욱 기대를 모았다.

ppbn@news1.kr

'삼시세끼' 나영석 "차승원, 유해진에 교화됐다"

(서울=뉴스스타) 명희숙 기자 = 나영석 PD가 차승원의 변화를 설명했다.

나영석 PD는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S빌딩 다목적홀에서 열린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 시즌2'(이하 삼시세끼) 제작진 공동인터뷰에서 "차승원

이 유해진 화 됐다. 예전에는 차승원이 약삭같이 하고 유해진이 밖으로 나도는 남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차승원이 많이 교화됐다. '대충 해먹자' 이런 모습을 보인다. 차승원씨가 더 화려한 요리를 하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훨씬

소박해진 요리를 보여준다"고 차이점을 밝혔다.

그는 "차승원씨가 전에는 요리한다고 집 밖으로도 안나갔는데 이번에는 섬을 둘러보기도 하고 자기 시간을 즐긴다"고 관전 포인트를 밝혔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이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감독관 면제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유리터 구역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대표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예선호 이사장 / energy@xoom-energy.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BOAAB • GDT • LMBB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용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뻐다' 황정음 · 최시원, 알콩달콩 복춘 데이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그녀는 예뻐다' 황정음과 최시원의 데이트 현장이 포착됐다.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뻐다'(조성희 극본/정대윤 연출) 측은 8회 방송을 앞둔 8일 혜진(황정음 분)과 신혁(최시원 분)이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 속 혜진과 신혁은 의남매인 듯 연인인 듯 알콩달콩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한옥이 즐비한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 마치 스틸에서 웃음소리가 음성지원 되는 듯 유쾌함이 철철 흘러 넘친다.

특히 신혁은 다리 한 짝을 든 채 영성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혜진의 모습을 몰래 사진에 담으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포복절도'라는 단어를 은모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혁의 모습에서 특유의 너살 매력이 담뿍 묻어난다.

이 장면은 서울 복춘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날 황정음과 최시원의 촬영을 구경하기 위



해 구름인파가 모여들어 '그녀는 예뻐다'의 뜨거운 인기가 증명됐다. 황정음과 최시원은 촬영 중간중간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이어나갔다는 전언이다. aluem_chang@news1.kr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SBS | 용팔이 |
| 2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3 | KBS |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MBC | 이브의 사랑 |
| 6 | SBS | 미세스 캅 |
| 7 | MBC | 내 딸, 금사월 |
| 8 | KBS | 가족을 지켜라 |
| 9 | SBS | 애인있어요 |
| 10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신규 방송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함정 | 마동성/조한선 |
| 2 | 뷰티 인사이드 | 한효주/김대명 |

문근영 "대본 읽기도 전 '마을' 출연 결심"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문근영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문근영은 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BS 새 수목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극본 도현정, 연출 이용석)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이 너무 재밌었다"고 말했다.

문근영은 "대본을 읽는데 영화 한편을 보는 것처럼 심장이 쫄깃하고 재밌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다"며 "그 선택을 하기 전 대본을 다 읽기도

전에 빨리 감독님과 작가님을 만나봐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퍼즐이 잘 맞춰져서 정말 큰 그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다. 만나뵙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듯한 퍼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그래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문근영 마을 기대된다", "문근영 마을, 어떤 캐릭터일까", "문근영 마을, 흥미진진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TBO PLAY 보스턴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권리에 가해된 최신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The Best On-Demand 4.0.0. 인터넷 TV 서비스인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TBO 내 손 안에 있습니다. TBO TV는 전 세계로 확대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su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맥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약세사리 카트 : 큰 플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6.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8.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7회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도 이렇지 않을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무엇인가 차라리 하나면 괜찮을 것을 하나 가 아닌 둘이 되어 짝지어진 것은 골칫덩이다. 그 이유는 둘 중 그 하나가 생명(수명)이다 되면 다음 것을 고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집에서 골동품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세탁기이다. 가장 가까우면서 소홀히 대하고 있고 흠대를 받는 것이 세탁기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새집을 짓고 이사해 이 집에서 살아온 지 23년이 되었다. 그 23년 동안 세탁기를 2번밖에 바꾼 기억이 없으니 오래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다른 가정에서도 그 정도는 사용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우리 집에서 골동품이라 여기며 산다.

처음 새집으로 이사한 후 Laundry machine과 Dryer를 함께 사고 몇 년을 사용했을까. 세 아이가 있으니 빨랫거리는 늘 많은 집이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런드리 머신이 먼저 고장이 났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드럼세탁기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던 때문가 보다. 그럼 이번에는 드럼세탁기를 사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한데, 정작 세탁기를 보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지만, 집에 남은 드라이어와 어느 정도 짝이 맞아야겠다는 생

각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래 그 드라이어 브랜드 네임이 뭐였더라 하면서 같은 아이보리 컬러로 사들이고 말았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탈 없이 잘 쓰고 있어 빨래하다가 문득 혼잣말로 우리 집의 골동품이라니까 하면서 피식 웃기도 한다. 그 중간에 Dryer도 한 번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옆에 남은 Laundry machine과 맞추어 사고 말았었다. 그리고 이번에 드라이어가 고장이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역시 살림꾼은 아닌 모양이다. 다른 물건들은 비싼 것도 잘도 사는데 왜 이렇게 주부가 제일 가까이 두고 사는 물건을 대중 편안한 것으로 맞춰 고르는지 말이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색깔로 보더라도 알뜰한 주부는 아니니 그저 무늬만으로도 제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이다.

이번에도 결국 오래 쓰고 있는 런드리 머신에 컬러를 맞춰 비슷한 드라이어로 골랐다. 이제는 '드럼세탁기'에 대한 그 어떤 마음도 없었다. 이제는 세 아이도 모두 훌쩍 떠나고 가끔 막내 녀석이 집에 올 때 가득 담아오는 빨랫감 외에는 그리 많지 않은 세탁물이니 그럭저럭 깨끗하게 빨아지고 말려지면 최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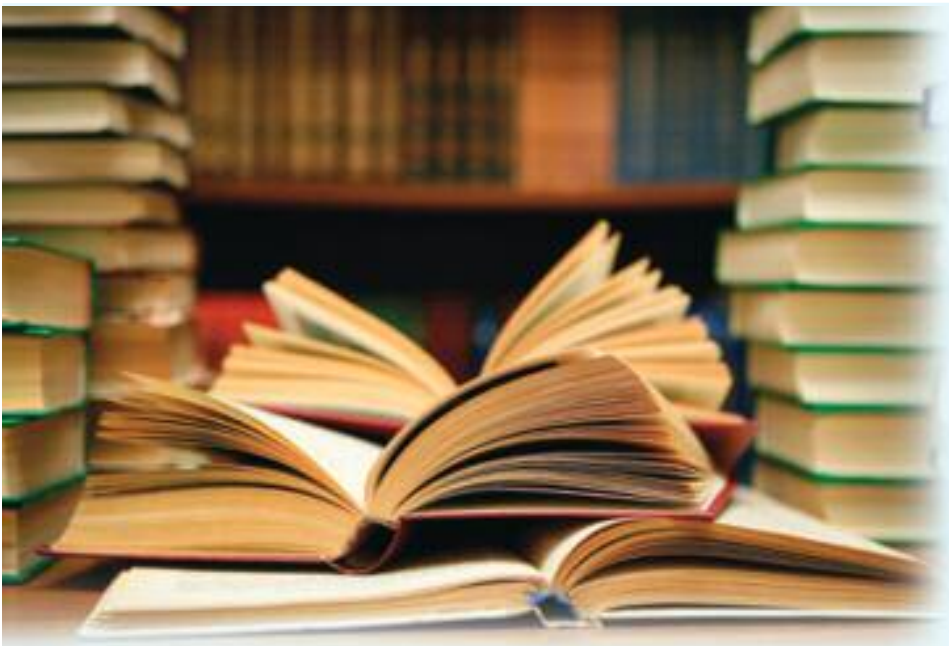
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른 알뜰한 주부들의 얘기를 듣다가 문득 주눅이 들어 입을 다물 때가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줄어들었다. 어쩌면 모두가 사는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안 까닭이다. 그저 자기한테 맞는 삶이면 족한 것이다.

드라이어를 산지 한 일주일 되어 빨래를 새 드라이어에 넣고 몇 번 말려보았는데 역시 새것이라 기분이 상쾌해 좋다. 이렇게 하나를 남겨놓고 색다른 것으로 짜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훌쩍 던져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또 깨닫는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살이에서의 그 어떤 것일지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 외의 어떤 관계이든 물건이든 간에 말이다. 참으로 소소한 일상에서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이처럼 너무도 편안하고 익숙해서 소홀히 대하는 것들이 내 곁에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내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 더욱 그리운 날이다. 철없는 막내딸이 염려스러워 그러셨을까. 어머니는 어린 시절 가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우리 삶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

다고 '헛 것이 있어야 새것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마도 작은 것을 아끼라는 말씀이셨을 게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흘려보냈다. 아니 늙은 엄마의 잔소리쯤으로 흘려보냈었다. 오늘따라 '내 어머니' 더욱 생각나 마음이 뭉클해 온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흐르니 더욱이 보고 싶은 날이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그토록 일러주셨던 내 어머니 그리운 날이다.

집안의 세탁기(드라이어)가 고장이 나 무엇으로 고를까 망설이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머물렀던 하루였다. 그 하루 속에 세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지냈던 내 삶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 시간 속에서 행복했던 시간과 버거웠던 시간을 만나며 혼자 잠시 시간 여행을 다녀왔다. 그 덕분에 마음이 더욱 맑아졌다. 그래, 무얼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 일이 있을까. 조금은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고 느껴보면 저절로 평안함이 찾아온다. 삶에서 괜스레 조금씩 생각하고 안달하는 마음에서야 어찌 평안함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길.



한담객설閑談客說: 동네 도서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중앙지 칼럼에서 읽었다. '노인이 한 명이 돌아 간다면,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껍껍히 쌓인 노인들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말이 과장되었다고 읽히지 않는다. 노인은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무지 큰 컴퓨터가 아니던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게 얼마일 것인가? 배우고 익힌 것이 얼마나 깊고 넓어 도서관 하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보스톤 도서관은 화려하고 웅장하다.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화이불치華而不侈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다. 건축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참 잘지었다. 보스톤 주변 지역 도서관은 크기는 작아도 모두 그렇지 않다. 미국에 처음 와서 놀랐던 것 중 하나였다. 읍내마다 시내마다 도서관은 어디나 중앙통에 자리

잡고 있다. 아담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한데, 도시 전체와 사뭇 잘 어울려지는 거다. 미국인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공회당을 세웠으며, 도서관을 먼저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는 렉싱턴 읍내에도 갖출 건 다 갖췄다. 우체국은 단아하고 고풍스럽다. 시청은 그저 그렇다만 그런대로 불만하다. 하지만 몇 년 전 새로 지은 도서관은 예술작품이다.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다. 그닥 크지는 않지만 책을 빌리고 싶고, 책을 읽고 싶고, 찾아가 사진을 찍고 싶은 분위기인 게다. 고풍스러움과 도서관이 주는 진중한 모습이 조화롭다고나 할까? 이 도서관에선 여전히 종이책이 우세하다. 설사 종이 책이 점점 사라진다 해도, 렉싱턴 도서관 책은 여전히 남아 있을 듯 싶은 거다. 방대

한 도서관인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면, 또다른 노인이 새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백린선생의 부음을 접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보탠다. 선생님을 이야기할 적에 도서관과 조선실록과 그의 주옥같은 글을 밀어낼 수는 없다. 대선배께 외람된 망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선생의 글은 매우 단정했고, 과장되지 않아 정직하게 읽혔다. 그의 구체적 체험과 탄탄한 공부에서 연유했기에 자연스럽게 읽혔던 거다. 선생이 남긴 글에서 읊으셨던 신사임당의 시이다. 인용한다.

늙으신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외로이 서울길로 떠나는 이마음
때때로 고개돌려 북평쪽 바라보니/흰구름 아래로 저녁산이 푸르구나
(신사임당, 시조)

장로님은 매주 주일 아침이면, 크신 키에 사모님과 함께 교회당 문을 넘으셨다. '글을 잘 읽었습니다.' 말씀 드릴 적이면, 언제나 얇은 미소가 흘렀다. 더 일러주실 말씀이나 있으신 것처럼 망설이는 듯 싶기도 했다. 장로님의 정치精緻한 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것도 장로님을 잃은 아쉬움 중에 하나다. 장로님의 글과 주신 말씀들은 오랫동안 남아 있을거다. 동네 도서관이 여전히 그곳에서 서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도서관 하나를 잃었다.

선생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책과 함께 영면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가 12:26, 공동번역)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故 백린 선생님 영전에 드리는 조사(弔辭)

어제, 백 선생님께서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나셨다는 슬픈 소식을 몇 분께 전화로 알려 드렸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라는 한결같은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참 좋은 분” 을 만나고, 가까이 하며, 나름대로 삶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10여 년 전부터 누렸습니다.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에 참여하시며, 공동집필하신 “뉴잉글랜드 한인사” 가 발간될 때 짝이 됩니다. 그 후 “노인대학”, “성인대학”, “봉사회” 그리고 “역사연구회” 를 통하여 이제까지 모시며 같이 하여 왔습니다.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세워지고 원활히 운영되기에는, 선생님께서 평소 쌓으신 한인사회 내에서의 인덕과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힘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학자셨습니다. 청년 시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재직하시며

당시 한국의 석학들을 접하셨던 영향과, 그 후 평생 같은 직에 계셨기에 자연스럽게 학자가 되셨습니다. 역사기록을 보존하며, 새로 기록하며, 연구하는 역사학자이셨습니다.

사소한 기록물도 후세에 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다 모으셨습니다. 수집하신 희귀 도서 중 1,000여 점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도 하셨습니다.

한편 역사에 관련된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지속하여 글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모님의 내조도 컸습니다. 교정보시고, 타자하시고, 팩스로 신문사로 보내시고, 최근엔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도 하셨습니다. 쓰신 글 중 빼놓을 수 없는 역사기록이 있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6.25 동란 시, 조선왕조실록 등 국보급 도서 7,000 여권을 피난시키고, 3년간 충실히 지키신 자세한 경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생님만이 쓰실 수 있었기에, 글로 남기시지 않

으셨다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영영 잊힐 뻔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글을 쓰시는 다른 이유는 교민들에게 역사가 갖는 의미를 알리려는 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지면 “윤박사, 글을 계속 자주 쓰세요” 라고 격려하시곤 하였습니다.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로 늘 대해 주셔서 어려웠기도 하였으나, 존경심을 더 갖게 하셨습니다.

학구심이 높으셨던 선생님께서는 “역사연구회” 를 조직하시고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셨습니다. 소위 “글 쓰는 사람” 들이 대부분인 모임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연금이 나와서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경비도 선뜻 다 부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역사연구회” 첫 연구 발표회 주제는 한국의 오늘날 국제사정이 100년 전과 똑같다고 하시면서 “포츠머스조약” 으로 정하셨습니다. 교민 사회로써는 최초인 연구발표회였으나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토론모임을 자주 가졌으며, 회원들과 훈훈하며 신의를 지키는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식사 때 단골 주문은 갈비탕이었습니다. 남은 뼈는 제가 기르던 개의 몫이라고 하시며, 따로 챙기시던 자상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병문안 시 저에게 약력이 적힌 봉투를 주셨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준비를 차분히 하시는 여유와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가까이 하며 모셨던 행운을 오래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신 동료분들을 평소 그리워하시곤 하셨는데, 이제 부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 선생님의 명복을 비읍니다.

2015년 10월 2일
윤희경 재배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백린 선생님 가시는 길에 함께 모여 마음으로 배웅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온 가족은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화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영사관, 민주평통위원회, 보스톤 한미 노인회, New England Korean School,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회, 성요한교회, 보스톤한인교회, 보스톤 한인회, Harvard Korea Institu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hattanooga,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New England

고 백린 선생님의 유가족

미망인: 최선경

3남 1녀: 백경희, 박재영
백홍기, 이은희
백영기, 양은진
백형기, 홍경애

손주: 브라이언, 앤드류
제이슨, 크리스탈
제니(Jennie), 윌리엄
로렌(Lauren), 숀(Shawn)
에밀리(Emily), 렉시(Lexie)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6. 대평원 전쟁의 서막 (1)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
미국의 영토 확장 자체는 본서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 밖에 있으나, 미국의 계속되는 팽창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버지니아의 작은 정착마을에서 시작된 미국은 200여년이 지나자 미국의 동부와 남부는 미국화가 완성되었고 1800년대 중반부터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평원을 가로질러 서부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과의 충돌 없이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해 왔던 평원 인디언 부족과 멕시코로부터 양보 받은 구 스페인식민지에 살던 인디언부족에게도 시련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독립 이전 식민지시절의 미국 땅은 대체로 대서양 연안에서 애팔래치아 산맥까지이었다. 독립전쟁에 승리하면서 '1783년의 파리조약'에 의거 영국으로부터 미시시피 강 동쪽의 땅을 모두 양도받았다. 1803년에는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로키 산맥에 이르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하였다. 한때 프랑스는 루이지애나 땅에 강력한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큰 꿈이 있었으나 유럽 내에서 계속된 전쟁으로 재정이 매우 어려워진데다가 미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는 그 꿈을 접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미시시피 강을 이용한 원활한 수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시시피 강 입구에 위치한 뉴올리언스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뉴올리언스 매입사절이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에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 전부를 사갈 것을 미국 측에 제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며 루이지애나가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매입된 토지는 한반도면적의 열배나 되었는데 매입비용은 15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1 km² 당 7달러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런데 인디언의 시각에서 이 거래를 쳐다보면, 남의 나라와 땅을 사고팔다니 조선 후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의 행태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훗날 것이나 진배없는 미시시피 강 서쪽 땅을 헐값에 매매한 장물아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1818년 영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북쪽의 국경을 북위 49도선으로 직선화시키면서 미국이 내준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얻었고 1846년에는 영국과 맺어진 '오리건 조약'에 의거 그동안 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 오던 서북부 지역에서 북위 49도를 기준으로 그 이남의 땅을 미국의 영토로 확정지었다.

텍사스는 스페인의 침입 이래 줄곧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1821년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로는 멕시코 영토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1820년대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로 이주해와서 정착마을을 건

설하였다. 미국인의 세력이 충분히 커지자 이들은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텍사스공화국을 건설하였다. 텍사스공화국은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기를 원하였다. 미국의 입장은 찬반이 엇갈렸다. 우여곡절 끝에 1845년 12월 29일 미국은 텍사스공화국을 미합중국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외교관계는 파탄 나고 멕시코와 텍사스 주간의 국경설정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비교적 쉽게 멕시코를 물리쳤으며, 1848년 2월 2일 체결된 강화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에 의거 캘리포니아,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남서부의 광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오늘날과 같은 미국 본토의 영토가 완성되었다.

인디언의 부족이름이나 산이나 강과 같은 지리적인 이름들 중 영어식 이름보다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영토 확장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와 스페인 식민지를 미합중국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의 인디언과 처음 접촉한 유럽인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그 부족에게 이름을 붙이고 마을이나 지형지물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디트로이트나 세인트 루이스나 뉴올리언스와 같은 도시는 프랑스인들이 건설하였기에 프랑스식 이름이 붙었고,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산타페와 같은 도시는 스페인 식민지였기에 스페인 이름을 갖고 있다. 인디언 부족중 가장 큰 땅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바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식 표기에 따라 Navajo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인디언 역사서 중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Dee Brown의 'Bury my heart in Wounded Knee'에서는 'Navaho'라고 표기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1 태권도와 김운용(1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운용은 2004년 1월 28일 구속 당시의 떠들석했던 것보다 빨리 가석방되었다. 1년 5개월 후인 2005년 6월 30일 특혜파문과 함께 가석방되었다. 당시 '월간중앙'이 7월호에 실으려고 한 그의 석방에 관한 기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진지 10여일이 지나지 않아 그는 석방되었다. (청와대와 자크 로제 IOC위원장 그리고 김운용과의 위험한 3각 '빅딜'이 있었다는 소문, 이 기사는 끝내 '월간중앙'에 실리지 않고 사장되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27일자 '오마이뉴스(Ohmynews)'에 보면 '월간중앙'이 실으려고 했던 기사의 내용이 실려있다. 거기에는 김운용의 IOC위원 자진사퇴를 전제로 자크 로제 IOC위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협상이 있다. 주요내용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 '태권도의 정식종목 유지', 'IOC위원의 한국인 승계' 등이다. 사실의 여부는 범부나 '무부武夫'는 알 길이 없고, 다만 평창은 2018년 올림픽을 유치했고, 태권도는 2020년까지 정식종목이며, IOC위원은 태권도 선수 출신의 문대성이 차지(당선)했다. 문대성은 현재 국회의원이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딜(Deal)이

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운용은 본의와 다르게 두 번이나 '희생양'이 되었다. 2003년, '2010동계올림픽' 평창유치 (2003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지 선정, 1차 투표는 평창이 세 도시 중 51표로 1위를 했지만 과반수가 안되어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떨어지고, 2차 투표에서 밴쿠버에 56대 53으로 졌다.) 때는 자신이 IOC부위원장에게 당선되려고 IOC위원들과 결탁하여 평창보다는 밴쿠버로 밀었다는 밀약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김운용은 단숨에 국민의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김운용은 모함이라고 항변했다. 그의 항변을 들어보면 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 시에서 결정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시 세 도시 중에서 평창이 1차 투표에서는 36표로 1위를 하였다. 그리고 3위의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는 탈락하고, 2차 결선 투표에서 47대 53으로 소치에게 패배했다. 이 때는 김운용이 IOC위원도 아니었고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래도 유치가 실패했다. 이 점이 그의 항변이다. 만일 그 빅딜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를 '제물(IOC위원직 사직)'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2003년 당시 김운용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역자와 배신자로 몰아부치던 '목소리 컸던' 조직위원회와 관계자들은 이 빅딜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다음은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이다. 지난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IOC 총회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25개 핵심종목에 태권도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올림픽 10위권 달성의 '효자종목' 태권도는 계속 올림픽에 남아있을까? 해답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세계스포츠계 흐름의 직시와 국격을 높여 더 유능하고 많은 IOC위원의 배출이다.

마지막으로 IOC위원 한국인 승계설의 내막이다. 그 딜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손해보는 딜을 했다. 일반 IOC위원은 임기가 70세 144) 까지이지만 문대성 같이 '선수위원' 145) 으로 선출된 위원은 임기가 8년이다. 임기동안에 주어지는 특전과 혜택은 일반위원과 같지만 연임이 거의 불가능한 임기와 임기 후의 한국인 승계의 보장이 없다.

144) 현재 IOC위원의 정년은 70세이다. 임기는 8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1966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종신제를 유지하고, 1999년 이전에 선임된 위원은 임기가 80세다. 1942년생인 이견희의 임기는 80세 까지다. 물론 재선임이 되어야지만(삼성전자가 IOC 주 후원사에게 재선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그의 건강이 문제이다. 심지어 '한겨레신문'과 인터넷 신문 '아시아엔 asiaN'은

2014년 5월 16일자 보도에서 이견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아직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 삼성병원 VIP실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삼성의 공식 입장이다. 후계자로 그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1970년생)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2011년 3월 부터)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

145) 선수위원은 총 19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하계올림픽 출신 8명과 동계올림픽 출신 4명을 선출하고 7명은 IOC위원장이 종교, 성별, 스포츠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선수위원들은 올림픽 기간중 참가 선수들에 의해 선출된다. 출마 자격은 당시 올림픽 선수나 직전 올림픽 선수에게만 주어진다. 문대성의 임기는 2016년에 끝난다. 김연아가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동계올림픽 선수이기에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2014년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1개국에서 1인만 인정하는 선수위원 규정때문에 출마할 수 없었다). 김연아의 유명세로 보아 당선 가능성은 있지만 2명만 선출하는 선거, 보장은 없다. 그러나 김연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2년의 공백은 큰 것이며, 당시의 협상은 진 것이었다. 역도의 장미란과 사격의 진종오도 2016년 리우 데 자이네루(브라질) 올림픽 때 선수위원 출마를 선언하였다. 건승을 빌 뿐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2)

가볍게 생각하는 투자경비

최근 주식시장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투자자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어지며 주식 시장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도 움되는 소식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변화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 니다.

주식시장의 변화를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경비(fee, expense, or commission)입 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많은 투자 자는 부과되는 경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 가지 사 정으로 \$30만을 급히 도와 달라고 사정합 니다. 이러한 부탁에 선뜻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30 만 보다 더 많은 돈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 게 가볍게 넘겨줍니다.

한 예로 나의 소중한 은퇴자산 \$100만을 투자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10%로 가정합

니다. (1927년 1월 - 2013년 5월까지 주식시 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투자경비가 1.0%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 약 \$560만이 되고 2.0%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460만이 됩니다. 단 1% 수수료 차이가 20년 후 \$943,454가 됩니다. 거의 백 만 불(\$1,000,000) 차이입니다. 이러한 돈을 가족이나 친지 혹은 사랑하는 모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 경비로 나갑니다.

투자비용 1% 차이가 이러하데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1%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금융상품인 어뉴 어티를 팔면 판 사람이 수수료로 4%~10% 받습니다. 또한, 어뉴어티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약 3.0%가 경비로 부과됩니다.

일부 투자자는 투자경비가 많아도 수익 률이 그보다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가 유망한 회 사에만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뮤추얼 펀 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

표를 인용합니다.

지난 3월 초 한 투자 종목을 평가하는 회 사(S&P Dow Jones Indices has studied) 에서 뮤추얼 펀드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대기업을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 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지 14%였다는 결과였습 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 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가 무려 86%였다 는 사실입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미 국 500대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특별했던 일이 아닙니다. 일 년이 아닌 지난 5년 동 안 인덱스 펀드보다 성적이 떨어진 뮤추얼 펀드는 89%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2%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도와주는 유명 회사의 재 정설계사가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주식전문가(?)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을 확률이 희박한 데 재정설

계사는 그 많은 뮤추얼 펀드에서 어떤 펀 드가 주식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 고 선별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 대부분은 높 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경비는 많 은 차이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은 1.3%입니다. 뮤추얼 펀드의 경비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 입니다. 펀드매니저, 주식분석가, 등 많은 사람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는 이러한 비용이 전혀 없기에 인덱스 펀드 투자비용은 평균 0.3% 정도입니다. 경비에서만 투자자는 1.1%를 세이브 할 수 있다고 모닝스타 회사가 말합니다.

투자하는 데는 '싼 것이 비지떡' 이라 는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나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 지는 알 수 없으나 경비는 항상 부과됩 니다. 숨어있는 모든 투자경비를 정확히 발 표하는 재정설계사와 재정계획을 의논하 시길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 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 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 문제 만큼 미국 내 한국인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두 마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순위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를 가진 사람, 혹은 대학 교수, 교환 교수, 기업 간부, 주재원들이 해당됩니다. 4순위는 종교 관련 업종 종사자, 국제 기구 직원 등 직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순위는 흔히 '투자이민' 이라고 불리는 이민입니다. 1순위나 5순위의 경우, 흔히 '스폰서' 라고 불리는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2순 위에는 NIW라고 하여 고용주가 필요없는 카 테고리가 있으며 이는 지난 칼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5순위는 기본 투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민을 고려할 때 그 리고 미국 내 고용주가 이민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력(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ent)' 를 소지하고 그리 한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 를 가 지고 있으나 1순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 업으로 일하고 있지만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2 순위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학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 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2순위에 해당이 됩 니다. 이 때, 학위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받은 학위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 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 당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3순위입니다. 3순위는 숙련공(skilled workers), 전문직(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으로 나뉩니다. 숙련공은 2년 이상의 훈련 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해당됩니다. 숙련공의 경우, 특정 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졸이나 전문대 학력

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고려합니다. 전문직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잡 (office job)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에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은 영주권 신 청을 하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가 하는 일 자체가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지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라는 점입니다. 또한, H-1B와 같은 비이민 취 업 비자에서는 일정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영주권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3순위가 수년이 걸리는 등 시간적 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진 행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2순위와 비슷한 시 간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우려로 3순위를 기피하셨던 분들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경우 적정임금(prevaling wage)을 확인하고 미국 내 취업 시장에서 해 당 외국인인 영주권을 받는 것이 기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단거리 달리기 라

기 보다는 장거리 달리기해 해당되는 과정입 니다.

또한, 각 단계 별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 요합니다.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산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Job title)으로 들어가는지가 순위 결정이나 적정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호사의 실 제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 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 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白 (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精)과 욕심(慾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 갈라디아서 5:24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 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고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인가” 라고 질문한 최민희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질문에 “그렇다” 고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가” 라고 확인하자 고영주 이사장은 “민중민주주의자” 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민주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고영주 이사장이 말했었으니 노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란 말이나?” 고 재확인하자 “비슷하다” 고 답변.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여권 인사 김문수 경기지사와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도 “전향한 공산주의자들” 이라 했었다.

고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고 하지만 고 이사장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고 답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2일 국감에서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화공과를 졸업, 18회 사법시험에 합격, 27년간 검찰에 재직하다 지난 8월 방송문화 이사장에 선임됐었다.

고영주 변호사는 “노무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 밖에 안 된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영화 “변호인” 을 알아야만 한다.

12월 18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 이 누적 관객 800만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끈다.

이 영화는 1981년에 일어난 속칭 “부림사건(釜山事件)” 영화주인공 노무현(盧武鉉)전 대통령으로 알려진 사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부림사건’ 을 검색하면 ‘1981년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초기에 통치리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사상 최대의 용공(容共)조작사건’ 이란다.

다른 백과사전들도 내용이 비슷하며 이 사건의 변론은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등이 무료로 변론을 맡았으며 노무현은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에 걷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김광일 문재인등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수기(手記)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기에서 피의자들은 부림사건 와중에도 노동착취등 자본주의 모순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감명받아 그들의 관심사에 차츰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림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을 좌경의식화(意識化)시켰으며 이후 그가 정치의 길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되었기 땀누에 친노(親盧)세력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부산(釜山)지방 검찰청의 공안검사 3명이 수사를 했다.

이 가운데 한명이 고영주(高永宙-65-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변호사다.

白백: 1. 西方色素 서방색소-흰백 2. 信川 신천 땅이름 배. ‘백’ 과 ‘배’ 두가지로 발음된다. 이白花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존립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성경도 풀어쓰기 힘들었으며 믿음(信)도 설명되지 못했을 듯.

이 백이 처음 등장한 것은 BC 700-680년에 이사야(Isaiah) 선지자가 므낫세(Manasseh) 왕에게 순교 당할 때까지의 활동기간 중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다.

처음 白; 희다” 는 뜻이 ‘白’ 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 이 구절을 중국어 성경 新世界譯本 신세계역본이 “여호와在白天재백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여기에서 ‘白天백천-곧 흰 하늘’ 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다.

1. 白은 빛 (日) 의 숨결이다. 이 “빛과 숨결 ()” 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요한복음 3:19.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1:14.

2. 天은 둘째 (二) 사람 (人) 곧 삼위일체 하나님가족 중 인자 (人子) 예수님을 뜻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And do not call anyone on earth ‘father,’ for you have one Father, and He is in heaven. -마태복음 23:9.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곧 천부(天父)가 되신다. 따라서 예수님 곧天子 하늘

아들을 형(兄)이라 부르니 나는 天父와 天兄을 가진 ‘하늘 식구가 된다는 것! 白을 숨쉬기 때문!

해서 白이 증거하는 하나님 식구(食口)가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 듣는 자도 오라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生命水)를 받으라 하시더라. -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him who hears say, “Come!” Whoever is thirsty, let him come: and whoever wishes let him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요한계시록 22:17.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신부(the Bride)” 는 성령(the Holy Spirit)님의 영감을 받은 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를 말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교회는 이 초청의 말씀을 통해 “천국잔치를 초청해야만” 한다.

지난 10월 3일 보스톤한인교회 (담임 이영길 목사)는 백린(白麟)장로님께 92세를 일기로 이 천국초청 잔치를 해 드렸고 그 다음 10월 4일 주일에는 담임 이영길 목사님 부친 이창로 장로님이 101세를 일기로 이 잔치에 떠나셨고 또 같은 보스톤한인교회 김지수 권사(89세)님이 10월 7일에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로 마지막 호흡을 하셨다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요한복음 11:25,26.

예수님을 믿으면 白이되 생(生)과 사(死)의 구별을 넘어 영생(永生)잔치에 참여할 뿐이다.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한국에서 선봉적 인기를 끈 제품

전원스위치, 볼륨디지탈, 숫자버튼, 비상연락 버튼, 반복듣기, 전국, 미권주파수, 할리우드곡, 재생/일시정지, 다음곡, 다음주파수, 할리우드곡, 라디오, 음악모드 전환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피커, 노로복, 넷트, MP3플레이어용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연락 가능
- 할리우드 곡이든 음악이든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와 호환 (스트리밍)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루피체음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로로복
• 성경 흥망파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박집)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뉴 / 잉 / 글 / 랜 / 드 / 교 / 회 / 협 / 의 / 회 / 연 / 합 / 부 / 흥 / 회

예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강사: 김정호 목사(뉴욕후러싱제일교회)

기간: 2015년 10월 23~25일

시간: 금/토요일: 7시 30분, 주일: 6시 30분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목사), 나사렛사람의교회(유경렬목사), 내슈아한마음교회(최지원목사), 뉴햄프셔감리교회(어성찬목사), 뉴햄프셔인교회(문은호목사),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김동선목사), 로드아일랜드제일한인교회(정원진목사), 로드아일랜드중앙한인교회(주원열목사),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목사), 밀알교회(박일중목사), 보스턴은혜장로교회(우시창목사), 보스턴장로교회(전덕영목사), 보스턴감리교회(안신형목사), 보스턴기쁨의교회(강덕식목사), 보스턴늘푸른교회(이진택목사), 보스턴사랑의교회(임웅순목사), 보스턴서부장로교회(김학수목사), 보스턴성결교회(이규연목사), 보스턴성령교회(손경호목사), 보스턴소망교회(전석훈목사), 보스턴시온성교회(박성우목사), 보스턴제일교회(장영규목사), 보스턴주님의교회(박찬수목사), 보스턴중앙교회(송평구목사), 보스턴필그림교회(박도술목사), 보스턴한인교회(이영길목사), 보스턴한인연합교회(신연동목사), 북부보스턴연합감리교회(김용환목사), 새빛교회(김대업목사), 생명의길장로교회(장성우목사), 성요한연합감리교회(조상연목사), 순복음보스턴교회(김면진목사),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목사), 아름다운교회(김광식목사), 안다옥연합감리교회(강명석목사), 열방교회(이재호목사),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목사), 워싱턴교회(이길로목사), 은혜진리교회(김승환목사), 임마누엘연합교회(김덕기목사), 좋은감리교회(권오진목사), 지구촌방주교회(유영일목사),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김영호목사), 케임브리지한인교회(김태환목사), 퀴즈영생장로교회(정재홍목사)

ReNEW 2015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뉴잉글랜드에 부흥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자' (Revive the New England Wave)



ReNEW 2015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11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저녁 7시부터 열린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19세기 Williams College에서 일어난 '건초더미 기도운동'과 그로부터 시작된 학생 선교 자원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순전한 기도를 드렸던 몇몇 젊은이들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걸음을 옮겼던 이 곳 뉴잉글랜드에서,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들과 청년들을 사랑하는 젊은 사역자들 및 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태환 목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뜻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매년 ReNEW Conference가 열리고 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3년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주제로 모인 2014년을 포함한 지난 6년 동안,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약 50여개의 교회에 속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던 리뉴 집회가 올 가을에도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공동 진행 총무를 맡고 있는 성보영 목사는 "리뉴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 용기를 불어넣는 집회를 넘어, 참석자들이 명목상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발돋움하여 개인과 교회 공동체 및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고민하는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권지현 목사(성경강해), 김형국 목사(주제강의), 이주연 목사(새벽기도, 크리스천의 삶), 김건희 대표(크리스천의 삶, 세미나), 김수우 교수(크리스천의 삶, 세미나), 김진수 장로(크리스천의 삶, 세미나), 서명구 교수(세미나), 이정규 형제(크리스천의 삶), 조동욱 선교사(크리스천의 삶, 세미나), 한충희 장로(크리스천의 삶, 세미나), 함해욱 교수(세미나) 등 미주 각 지역과 한국에서부터 자비량으로 참석하여 섬기는 각 영역별 전문가 및 탁월한 강사진들이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매시간 심도 있게 펼쳐질 주제 말씀과 성경 강해, 패널 및 강사들과 함께 하는 열린 포럼과 주제별 선택식 세미나, 찬양과 기도의 밤 등의 시간들이 준비 중이며, 특별히 다양한 분야

별 경험을 지닌 여섯명의 크리스천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을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 그리고 전공 및 관심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한 Task별 모임도 주목할만한 순서이다. 또한, 총 4회로 진행될 선택식 세미나가 기획 중에 있어 "청년 및 장년들에게 균형 있고도 실질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교육 담당 공동총무 이충호 전도사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뉴는 청장년만을 위한 집회는 아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연휴에 열리고 있는 리뉴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Nursery 부터 Youth 까지 다

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대에 진행된다. 영유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집회 실황이 생중계되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며, 3세부터 12세 참석자 아동들을 위한 ReNEW Kids (유치부/유년부), 중고등학생 동반 자녀들을 위한 ReNEW Youth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각 연령대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신앙의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NEW Kids는 기본적인 potty training이 되어있는 자녀에 한하며, ReNEW Youth는 전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된다.)

특별히 이 모임을 준비하며, 리뉴 스탭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매 주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으며, 격주에 한번씩은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합 기도 운동을 위한 자발적 헌신들은 뉴잉글랜드를 비롯한 지역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적인 경쟁 구도를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유기적인 한 몸임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내부적인 영적 각성과 역사를 타고 전해져 내려온 뉴잉글랜드 고유의 부흥의 영성은 11월 본 집회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감사 및 주제 선정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전문 찬양사역자들과 지역 교회 찬양인도자들과 청년들이 함께 연합팀을 이루어 섬기게 될 ReNEW 연합 찬양팀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NEW 집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ReNEW 홈페이지(www.renewusa.org)

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11월 26일(목), 27일(금) 양일간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저녁집회는 공간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에 오픈될 예정이다. 얼마 남지 않은 1차 등록은 10/11(일) 까지이며, 2차 등록에도 부부 등록 할인, 신학생 할인, 통근 등록(자녀가 있을 경우) 등의 다양한 등록/할인이 계속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마음으로 준비 중인 뜻깊은 자리에, 관심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청,장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집회문의: 성보영 목사(ReNEW 진행총무, renewinusa@gmail.com)
이충호 전도사 (ReNEW 교육총무, renewedue2015@gmail.com)
등록문의: 등록팀 renewregister@gmail.com





우리는 복음의 증거 입니다

WE ARE DEMONSTRATORS OF THE GOSPEL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알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1:16)

2015. **11/26**(THR)~**11/28**(SAT) THANKSGIVING HOLIDAYS **2박 3일**
@ **DOUBLETREE BY HILTON HOTEL BOSTON NORTH SHORE IN DANVERS, MA**

SPEAKERS

- + 권지현 목사 (다음세대교회 담임, GTM 대표)
- + 김형국 목사 (나들목교회 대표, 하나님나라복음DNA네트워크 대표)
- +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담임, 산마루서신 발행인)
- + 김건희 대표 (예수믿는청년, 극단 배우는사람 대표)
- + 김수우 교수 (HARVARD UNIVERSITY 치의학, DENTISTS FOR HUMANITY 대표)
- + 김진수 장로 (GITX MUSHROOM INC 대표, BUSINESS AS MISSION,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 + 서명구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THE CENTER OF BUSINESS AS MISSION 공동대표)
- + 이정규 형제 (MBC 공채개그맨 어쿠스틱밴드 DELIVER 보컬)
- + 한충희 장로 (주 UNITED NATIONS 차석 대사)
- + 함혜옥 교수 (BOSTON UNIVERSITY 사회사업학, ASIAN-AMERICAN WOMEN'S HEALTH INITIATIVE PROJECT 대표)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집회입니다.

- 집회 기간 중 0-2세 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NURSERY ROOM 마련되며, 3세 이상 자녀를 위한 KIDS RENEW와 YOUTH RENEW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비 성인 1차등록(~10/11) \$199, 2차 등록(~11/8) \$229, 3차 등록 \$269(-원장등록) <4인1실 기준, 호텔이용 및 식사비 포함>
0-2세 무료, 3-4세 \$60, 5-12세(KIDS RENEW) \$120, 13세 이상(YOUTH RENEW) \$199

등록문의 : renewregister@gmail.com 일반문의 : renewinusa@gmail.com

RENEW 2015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ONLINE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RENEW 2015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renewusa.org



무명의 디온 루이스, 떠오르는 스타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러닝백 디온 루이스는 2015년 이전까지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선수로 여러 팀을 전전했다. 그러나 루이스는 현재 패트리어츠에 없어서는 안 될 주전 러닝백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루이스는 2011년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이글스에 지명을 받아 프로팀에 입단했다. 그러나 루이스는 주전 경쟁에 밀려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2년을 보내게 된다. 루이스는 2시즌 동안 이글스에서 192야드만을 기록했다.

루이스는 브라운스로 이적하여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지만 다리 부상으로 2013년에는 경기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2014년 브라운스 트레이닝 캠프에서 방출된 루이스는 프리 에이전트 신분으로 콜츠에 영입되었지만 로스터에 들지 못하고 이내 다시 방출되었다.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기 전에 루이스는 2년 동안 경기 출전 기록이 전혀 없다. 4년 간의 기록만 본다면 마치 NFL에는 루이스가 있을 곳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치 감독은 루이스의 가능성을 보았다. 4년

동안 변변한 활약도 못하며 192야드를 기록했던 루이스는, 2015년 들어 3경기 만에 325야드를 기록하고 있다.

루이스가 합류하기 이전에 패트리어츠는 스티븐 리들리와 쉐인 버린이 주전 러닝백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슈퍼볼 우승을 끝으로 리들리와 버린은 프리 에이전트 신분으로 패트리어츠를 떠났다.

패트리어츠에는 파워 러닝백의 역할을 담당할 르개렛 블린트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3번째 다운에서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캐칭 능력이 있는 러닝백이 필요했다. 게다가 최소한의 투자로 러닝백을 활용하는 벨리치 감독의 성격상 적은 비용을 들여 안정적으로 활용할 가능한 루이스는 이상적인 옵션이었다.

특히 루이스는 체구와 외모, 운동 능력 등이 과거 패트리어츠에서 활약했던 케빈 포크와 유사한 점이 많다. 포크는 패트리어츠에서 13시즌을 뛰며 7,308야드, 31터치다운을 기록한 선수다. 루이스는 포크가 입었던 등번호 33번을 달고 있다.

포크와 루이스가 러닝백으로 뛰어난 점은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피하는 능력이다. 이미 루이스는 3경기 동안



패트리어츠의 러닝백 디온 루이스는 올해 프로 풋볼 선수로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20개의 태클을 피하며 NFL 러닝백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루이스는 캐칭 능력도 뛰어나 179 리시빙 야드를 기록 중이다. 러닝백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숫자다. 빌스와 2주차 경기에서는 한 경기에 98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패트리어츠의 공격에서 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러닝 공격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벨리치 감독은 잘 알려지지 않은 러닝백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경기에서 의외의 변수를 만들어 내는데 능하다. 지난 해 조나스 그레이와 브랜드 볼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

다. 루이스는 한 경기에서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3경기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땅 속에 묻힌 존재나 다름 없었던 루이스는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으면서 보석이 된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 (Constitution) 의 탄생 (2)

3/5 타협

제헌의회에서 벌어진 이 논쟁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부주들과 북부주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과세목적의, 그리고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의 “인구 수” 를 산출할 때, 흑인 노예의 인구 수를 그 인구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였다. 노예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었기에, 논리적으로 비시민이었다. 비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리하지도 않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혹은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그들의 ‘머릿수’ 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어쩐지 부자연스러웠지만, 이만큼 남부와 북부간의 이해 관계가 확연히 갈리는 사안도 드물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제헌의회를 관통하는 “논쟁과 타협” 은 이 문제에서도 계속된다. 남부와 북부주들은 치열하게 논쟁했고, 그리고 타협을 일궈냈다. 노예 한명은 과세의 표준 혹은 의원수를 산출하기 위한 인구수 계산이 필요할 때 3/5명의 자유인으로 취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타협은 3/5 타협으로 불린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는 양측이, 국가의 화합을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글로 건조하게 쓰면 참으로 혼 혼하게 들리지만, 각 주의 엘리트들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조건을 갖춘 건국의 아버지들 입장에서야 손해볼 것

은 아무것도 없는 타협이었을 것이다.

헌법이 인정한 노예제

3/5 타협을 통해 미국 헌법은 노예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노예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한 또 다른 타협이 있는데, 무역 및 주간 통상 타협 (International and Interstate Commerce Compromise)의 예외 조항이 그것이다. 연합 헌장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가진 가장 큰 한계이자 필라델피아의 제헌의회가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가지는 바로 서로 다른 주간의 통상에 관한 문제였다. 연합헌장 하에서는 각 주 (State)의 독립과 자치의 성격이 강했고, 연방이 주의 권한을 넘어서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들은 타주와의 통상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 주와 주간의 서로 다른 법이 상호 교역시 마찰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필라델피아의 제헌의회에서는 외국과의 교역, 주간의 통상에 대한 관할은 연방 의회에 있다는 조항을 채택하게 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가 별다른 이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노예의 수입에 대한 것이었다. 남부의 주들은 연방 의회가 노예 수입이라고 하는 특수한 종류의 무역에 대해 감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주의 권리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타협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해외 무역 및 주간 통상에 관한 권한은 연방 의회가 갖되, 노예 무역의 경우 “20년 동안은 노예 무역에 대해 의회가 간섭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예외조항으로 추가했던 것이다. 노예 수입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 1808년에 이르러 금지된다. (물론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반세기가 흐른 뒤의 일이었지만.)

노예를 인구수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싼 이 논쟁, 그리고 무역 및 통상에 관한 논쟁과 타협은 사실 독립혁명의 한계를 보여 주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생명, 행복추구, 자유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는 독립 헌장의 대명제에 비추어 노예제의 존재 자체는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독립혁명의 한계를 드러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별다른 논쟁없이 통과시킨 사안 중에 대통령 선출과 상원의원 선출에 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상원의원 역시 초창기 헌법에 따르면 간접 선거로, 주당 두 명씩의 상원의원을 각주의 의회가 선출하여 중앙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초기 헌법의 대통령 선거 혹은 상원의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진 엘리트주의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대부분의 대중을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우매한 존재로 못박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좌우하는 중우정치 (Mobocracy)를 우려한” 장치를 마련했다. 독립 혁명은 분명 왕정을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주의로 바꾸었지만, 그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초기 헌법의 또 다른 측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사실 여성들의 투표권과 관련된 문제는 논쟁조차 되지 않았다.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는 백인들 역시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한, 건국기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

1787년 쓰여진 헌법의 흥미로운 한가지 측면은 정당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1780년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이견이 고착화된 정당이라는 시스템을 우려했다. 물론 1790년대 들어 해밀턴의 재정 정책 등에 대한 제퍼슨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결국 연방주의자당과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시스템으로 분화되기는 하지만,

(다음 호에 계속)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